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저우유광 백세 회고록

周有光百歲口述(周有光百歲口述)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韓 美 愛

2013年 2月

저우유광 백세 회고록

周有光百歲口述(周有光百歲口述)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韓 美 愛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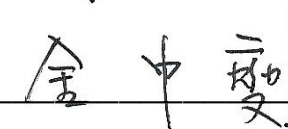

2013年 2月

韓美愛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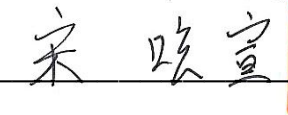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3年 2月

The memoirs of You-Guang Zhou

Mi-Ae Han

(Supervised by Professor HyunSu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Chi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1. 창저우(常州)의 청귀(靑果)골목	1
2. 위즈(育志)초등학교	5
3. 창저우(常州)중학교	7
4. 5.4운동	11
5. 세인트존스대학	13
6. 광화대학(光華大學)	21
7. 로마자표기운동	30
8. 나의 아내, 장원허(張允和)	34
9. ‘물 흐르듯’ 찾아 온 사랑	40
10. ‘거배제미(舉杯齊眉)’	46
11. 네 자매	51
12. 나의 동서 선충원(沈從文)	57
13. 일본 유학	60
14. 항일 전쟁	66
15. 상하이(上海)에서 쓰촨(四川)으로	71
16. 맹목적인 ‘좌경(左傾)’	78
17. 미국 생활	83
18. 아인슈타인과의 만남	90
19. 세계 일주	94
20. 미국에서 돌아오다	99
21. 상하이의 변화	102
22. 문자개혁위원회	111

1. 창저우(常州)의 청귀(靑果)골목

나의 증조부의 호는 윤지공(潤之公), 조부의 호는 봉길공(逢吉公)이었다. 나는 그분들의 호만 기억할 뿐 존함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성함은 바오이(保貽), 호는 기언(企言)이었고, 어머니의 성함은 쉬원(徐雯)이다.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셋째 누나가 나의 가장 큰 누나가 되었다. 어머니는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다섯째 누나, 나 그리고 아홉째 여동생까지 모두 5명을 기르셨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일곱째를 낳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 여덟째 여동생이 또 태어났다. 이런 이유로 내 여동생이 아홉 번째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집에 여섯 번째로 태어났다.

증조부께서는 《창저우부지(常州府誌)》에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을 만큼 유명한 분이셨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해 우리 집안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증조부께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기 전 공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공업이라고 해도 그때는 수공업이었다. 때문에 창저우의 면방직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우리 마을은 매우 가난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업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농가마다 한 명씩은 도시에서 일하는 가족을 두고 있었기에 농촌이라 할지라도 농사만 지은 것은 아니었다.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증조부의 두 번째 부인인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께서는 어미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고양이 8~9마리를 키우셨는데, 매일 저녁 잠자기 전 고양이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셨다. 고양이들 사이에도 규율이 분명했고, 어미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관리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눈독을 들이는 새끼 고양이를 쫓아내려면 어미 고양이를 밥상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다. 새끼 고양이는 밥상에 오르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어미 고양이의 매질에 나가떨어지곤 했다.

창저우에서 우리 집은 청귀(靑果)골목에 있었다. 청귀골목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다. 나와 취치우바이(瞿秋白), 자오위안런(趙元任)은 모두 청귀골목에서 자랐고, 후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문자 개혁에 참여했다. 취치우바이는 형편이 좋지 못해 다른 사람의 집에 세들어 살았다. 우리 가족은 예화당(禮和堂)이라는 집에

살았는데, 명나라 때 만들어진 집으로 역사가 대단한 건물이었다. 때문에 낡긴 했지만 허물 수도 없어서 바로 옆에 새 건물을 또 지었다. 이렇게 줄지어 건물들 짓다 보니 우리 집은 여러 채가 붙어 있는 모양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오래된 집은 세를 주었다. 우리 집은 운하 근처에 있었는데, 집 앞으로는 길이 나 있고 뒤편으로는 강이 흘렀다. 우리는 강의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 학교에 가야했지만 강에는 다리가 없었다. 당시로서는 배들이 줄지어 만든 다리만 존재했는데, 사람들은 배를 다리삼아 강을 건너갔다. 큰 배가 들어 올 때면 줄지어 있던 배들은 길목을 터주었다가 큰 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합쳐졌는데 그에 따라 사람들도 다시 오고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세 살 때부터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다. 강 옆에 있던 할머니 댁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는데 달이 비치는 날이면 유난히 아름다웠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당시(唐詩)를 가르쳐 주시곤 하셨다. 대갓집에서 자란 할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셨다. 당시에는 신식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여자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아주 대단한 분으로 알려졌고, 송사를 할 때에도 직접 붓으로 소장을 적으실 만큼 학식이 뛰어나셨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가 보양식으로 드시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유였다. 그 당시 우유를 먹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를 집에까지 끌고 와서 직접 우유를 짜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 외에도 동네 아줌마들은 자신들의 모유를 할머니께 가져오곤 했는데 그 때문인지 할머니께서는 아주 건강하셨다.

아버지는 선생님이셨다. 당시 창저우에는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가 한 개씩 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여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후에 국학관을 세워 학생들에게 고문(古文)을 가르치셨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내 기억 속에 아버지는 고약한 성미를 지니시지도 고집이 썩 분도 아니셨다. 백화문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고문을 가르치셨지만 백화문을 반대하시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쑤저우(蘇州)로 왔고, 아버지는 둘째 부인과 계속 창저우에 남아계셨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가족은 흩어지게 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는 옛날식 교육만 받아보셨을

뿐 신식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셨다. 할머니는 수준 높은 지식인이셨지만 어머니는 평범한 지식인이셨고, 할머니의 문필은 훌륭했지만 어머니는 엉터리였다. 어머니는 책을 보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글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에 화를 내는 법이 없으셨다. 어머니는 “배가 다리 어귀에 다다르면 길은 있기 마련이다.”라며 조급해해도 소용없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평생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96세에 세상을 떠나실 때도 머리는 여전히 검으셨고 귀가 먹지도 눈이 침침해지지도 않으셨다.

항일 전쟁 때, 우리는 쓰촨(四川)으로 이사했고, 아버지와 둘째 부인은 일본인을 피해 시골로 가셨다. 항일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를 뽑으러 가셨다가 비위생적인 처치 때문에 병균에 감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부인도 얼마 안되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집에서는 국어, 영어, 무용 선생님을 초빙해 누나들을 가르쳤다. 나는 너무 어려서 누나들의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 집에서는 풍금 하나를 새로 들여왔는데, 여자 선생님은 누나들에게 무용과 노래를 가르치셨고, 남자 선생님은 영어를, 연세가 드신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셨다.

나는 서당에 가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 나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집에 남자아이라고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돼. 일찍 공부하면 건강에 안 좋아.”라며 나를 너무 애지중지했다. 당시 여동생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누나들은 나이가 많아서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세들어 사는 집으로가 내 또래 여자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 집의 어른들은 내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같이 놀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함께 놀아주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매우 외로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상황은 괜찮아졌다.

매년 설에는 어김없이 방마다 조상님들의 초상화를 차례대로 모셔놓고 예를 올렸다. 초상화는 평소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설이 되면 꺼내어 벽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는데, 마치 살아계신 듯 생생했다. 항일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을 오면서 물건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갔을 때 호텔에 걸

러있는 우리 중국 조상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었는데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창저우에 친척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릴 때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라는 호칭으로만 불렀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함은 하나도 몰랐다. 후에 나는 창저우에서 쑤저우로, 다시 상하이(上海)에서 해외로 끊임없이 밖으로만 내달렸고 몇십년 동안 창저우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취치우바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창저우에서 열렸고 나는 참석차 고향에 가게 되었다. 창저우하면 참빛이 떠오르는데, 《십오관(十五貫)》에도 15관(약 4500위안-역주)으로 창저우에서 참빛을 샀다는 내용이 나온다. 나도 몇 개 사볼까 했지만 결국 사지 못했다. 그때 나는 창저우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호텔 4층에 묵고 있었지만, 큰 비가 내리자 그 호텔 방에서도 물이 섰다.

그렇지만 창저우는 중국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다.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을 잇는 후닝(滬寧)철도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발전했는데, 후닝철도의 중심에 있던 창저우에서 최초로 발전소를 만들어 발전소의 전기를 철도 전체에 공급했다. 또 시골에도 일찍이 전등이 있었고, 전기를 이용해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 물을 펴 올리기도 했다. 때문에 창저우에는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고 농업이 일찍부터 발전했다.

2. 위즈(育志)초등학교

내가 좀 더 자라고 여섯 살 즈음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입학할 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당시는 신식학교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미 두 개의 초등학교가 지어져 있었고 우리학교는 세 번째였다. 내가 다닌 학교의 이름은 위즈(育志)초등학교로, 본래 사찰이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나를 데리고 사찰에 갔는데, 사람들이 보살들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다. 방법은 간단했다. 밧줄을 보살의 목에 걸고 아래로 잡아당기면 우당탕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보살들을 모두 치우고 말끔히 청소하고 나니 어엿한 초등학교가 되었다. 건물 안 곳곳에는 온통 참새 둥지로 가득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여느 장난꾸러기들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참새 알을 꺼내먹곤 했다. 어미 참새는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욱을 해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또 있는데, 바로 남녀공학을 제창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만 가능했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초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이 허용됐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남학생은 남학생부로, 여학생은 여학생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됐다고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한줄 씩 줄지어 앉았는데, 먼저 남학생이 자리에 앉고 나면 선생님들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 여자 사감 선생님께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와 옆에 앉히셨다. 수업이 끝나서도 사감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줄 세워 데리고 나가신 후에야 남학생들은 교실을 나올 수 있었다. 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분리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더욱 번거로웠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밥을 만들어 학교로 가져다주었는데, 남매지간에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따로 떨어져서 먹어야 했다. 그 후 제도가 바뀌면서 가족끼리는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처럼 그때의 남녀공학이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모두 훌

를했다고 말한다. 부(府)의 소재지에 있던 세 개의 초등학교는 모두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주 대단했다.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는 일본 학제를 모방해 저학년 4년, 고학년 3년 총 7년을 다녀야 했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했던 나는 6년 만에 바로 졸업했는데, 사실 이는 문제가 좀 있었다. 많은 수업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덜 공부하게 되면 공부의 맥이 중간에 끊겨버리게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내가 위즈초등학교를 떠나 쑤저우로 전학 오면서 창저우에서의 가족행사들도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 집은 설이나 명절을 아주 크게 보내곤 했는데, 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질 않았다. 어머니가 쑤저우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이 가난해지면서 창저우에서 계속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세가 기울었는데도 체면을 계속 차린다면, 그야말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내 기억으로 우리 집은 매일 같이 다른 집에 선물을 보냈다. 집집마다 다니며 선물을 배달하는 하인을 두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생활은 불합리한 것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창저우를 떠나 쑤저우로 이사 가기로 결심하셨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쑤저우로 이사를 했다. 처음 이사 갔을 때 우리는 방이 아주 많은 큰 집에 살았지만 너무 낡은 집이다 보니 후에 팔아버리고는 다른 집에 세들어 살았다. 우리는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렸고 방도 여러 개였다.

창저우와 쑤저우, 그리고 상하이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지만, 창저우가 낙후된 반면에 쑤저우 사람들의 생각은 다소 진보적이었고, 상하이는 쑤저우보다 더욱 앞서 있었다. 이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됐다. 창저우 사람들은 “중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대학교에 갈 필요 없어.”라고 말했고, 쑤저우 사람들은 “중학교로는 안 돼,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해야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이 사람들은 “대학교로는 안 돼, 반드시 유학을 가야해”라고 말했다. 세 지역의 거리 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지리적 여건과 사회문제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해외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문화는 모두 상하이에서 시작해 쑤저우로, 다시 창저우로 전달됐다.

3. 창저우(常州)중학교

아마 내가 6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바람에 창저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열두 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조차도 어떻게 전장(鎮江)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학교에 우리와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누군가가 나를 잘 봐준 것 같았다. 전장에서 나는 적응하지 못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장도 장쑤(江蘇)에서는 큰 도시에 속했지만, 내가 돌아온 이유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도 전장중학교하면 같은 반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었다는 것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창저우에 돌아온 후 나는 곧바로 창저우중학교 예과에 들어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다. 창저우중학교의 장점은 예과가 아주 잘돼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과목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수학을 못한다면 수학을, 영어를 못 한다면 영어를 보충해 주었다. 예과에서 나는 주로 고전, 그 중에서도 《좌전(左傳)》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예과 1년과 본과 4년을 합하면 초등학교를 6년 만에 졸업하긴 했지만 결국 7년 동안 다닌 셈이 되었다.

창저우 중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바로 투위안보(屠元博)로, 학교에 그를 기념하는 탑이 있었다.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청나라 말기 쑨원(孫文)과 함께 일본에서 혁명에 참여했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몰래 창저우로 돌아왔는데, 변발은 이미 잘라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가짜 변발을 쓰고 다녔다. 그 당시 남자들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낮에도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지 못했고 밤에는 가마를 타고 다녀야 했다. 모자를 쓰고 창저우에서 혁명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창저우 중학교를 설립한 것이었다. 청나라 말기부터 공사에 들어간 학교는 중화민국 원년에 완성되었다. 투위안보의 아버지의 존함은 투지(屠寄)인데, 《사해(辭海)》에서도 그 존함을 찾아볼 수가 있다. 투지는 역사학자로서 청말 경사대학당(京師大

學堂)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일찍이 아들인 투위안보를 일본으로 유학 보냈고, 투위안보는 쑨원의 오른팔이 되었다. 민국 초기에는 중국에도 국회가 존재했고, 각 당마다 의원이 있었다. 그 중 동맹회(同盟會) 의원들로 구성된 동맹회국회의원단이라는 당파가 있었는데, 그곳의 당수가 바로 투위안보이다. 북양정부 시절로 접어들면서 매우 격렬한 당파투쟁이 벌어졌고, 누군가가 그를 초대해 술에 도약을 타 암살했다고 한다. 투위안보의 아들 이름은 투보관(屠伯範)으로, 셋째 누나가 그에게 시집을 가면서 나의 매형이 되었다. 투보관은 일본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귀모뤄(郭沫若)와 동급생이었다.

장쑤성은 교육이 발달한 곳이지만 한 부(府)에 중학교 한 개만 세웠을 뿐, 대학은 없었다. 있어도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전부였다. 창저우에서 창저우중학교를 세우자 부에 속하는 주변의 여러 현(縣)에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 창저우로 몰려들었다. 교사들은 모두 수준이 높은 진보적인 분들이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우산슈(吳山秀) 국어 선생님이셨다. 당시 국어 교재는 모두 문언문(文言文)으로 되어있었는데, 선생님은 이러한 문장들을 해석할 때 그분의 사상까지 동원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다.

학교에서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명인강연”을 개최하곤 했다.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직접 유명 인사를 초대해야 하는데 어떤 한 팀이 우산슈 선생님을 명인으로 모셨다. 선생님은 소속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라 그러셨는지 칠판에 쓰여진 ‘명인강연’의 ‘名’자를 ‘各’으로 고쳐 쓰셨다.

선생님은 백화문을 주장하셨지만 당시 교실에서는 백화문을 사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선생님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우리에게 백화로 된 문장을 보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국어시간에는 수많은 5.4운동 사상을 일깨워주셨다. 우리는 선생님을 아주 존경했다.

창저우중학교는 남학교이기 때문에 여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모든 학생이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며 일주일에 딱 하루만 집에 갈 수 있었다. 또한 오전에 50분씩 세 과목의 수업을 들은 후 오후에는 특별활동을 했다. 무엇이 특별활동인가?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좋아하면 고문(古文)을, 서예를 좋아하면 서예를 선택할 수 있었다. 권법을 배우고 싶다면 북방권법과 남방권법을 가르치는 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되고, 음악을 좋

아한다면 국악과 서양음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아주 저명한 음악가인 류텐화(劉天華) 선생님께서 우리학교에 계셨는데, 음악 수업 중에서도 음악 이론을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학교에 군악대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매일 4시만 되면 큰 원을 그리면서 연주 하는 군악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곤 했다. 류텐화 선생님의 형은 류반농(劉半農), 동생은 류쇼우즈(劉壽慈)이다.

특별활동에는 시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분명 성실히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별 의미가 없었다. 사실, 시험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들이 다그치지도 큰 부담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말이다. 창저우중학교는 고문을 가르치는 실력 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도 매우 높았다. 우리는 대학에 입학한 후 자유롭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대학에 진학해서도 영어를 할 줄 몰라 따로 공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세계역사, 세계지리 뿐만 아니라 화학, 물리, 생물학 교과서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외국 지명의 영어 이름은 기억나지만 중국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뤄수샹(呂叔湘)과 나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 나보다 한 학년 위였던 그와는 공부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나는 그가 매우 존경스러웠다. 뤼수샹은 일찍이 집에서 고서(古書)를 공부했었고 시경(詩經)도 외울 수 있었지만, 나는 고서를 배운 적도 시경을 외우지도 못했다. 후에 나도 언어를 연구했지만, 그는 나보다 더 언어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뤼수샹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게다가 우리는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다. 언어학계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우리 둘의 생각은 일치했고,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았다. 뤼수샹의 형은 아주 유명한 화가 뤼펑즈(呂鳳子)이다. 창저우에서 형은 그림을, 우리 아버지는 국어를 가르치셨고, 두 분이 아주 친하셨다.

당시 고서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 선생님은 고문을 가르치셨지만 백화문을 주장하셨는데 그렇다고 백화문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문장을 쓸 때도 주로 문언문을 사용하셨는데, 백화문으로는 아무리 잘 써도 문장으로 쳐주지 않았다. 나는 중학교 예과 시절에 고서 중에서도 특히 《좌전》을 공부했다. 한 편씩 외우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 당시 고문 실력이 아주

빨리 늘었다. 우리 선생님은 《고문관지(古文觀止)》를 가르치셨고, 한유(韓愈)를 제일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을 따라 한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스러웠던 것 같다. 그 당시 기억력이 아주 좋았던 나는 수많은 고서를 읽었다. 같은 반에 리양(溧陽)이 고향인 스송페이(史松培)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당시 자습실에서는 두 명이 한 책상을 같이 썼는데, 스송페이와 짝꿍이 되면서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서를 읽어 온 스송페이가 부러웠다. 우리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5~6시에 일어나 함께 많은 고서들을 읽곤 했다. 스송페이가 동우대학(東吳大學)으로 가면서 우리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지금 그가 무척이나 그립다.

4. 5.4운동

5.4운동은 단순히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던 그 짧은 며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나라 말기부터 크게 격동하던 사상과 현대적 사조가 ‘5.4’에 와서 절정에 치달은 것이다. 5.4운동의 영향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나 역시도 예외일 수 없었다.

5.4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백화문운동이고, 두 번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국을 사랑하자는 외침이었다. 5.4운동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끌어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한 운동이었다. 모두가 ‘同仇敵愾(공동의 적에 대하여 적개심을 불태우다)’라고 쓰여진 깃발을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받아 적었다. 내가 찻집에서 연설을 할 때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연설에 빠져들었다. 나는 성장이 좀 늦은 편이어서 그 당시 내 키는 아주 작았는데 찻집에 있던 손님 한 분이 나를 번쩍 들어 탁자 위에 올려주었다. 나는 그 위에서 연설을 계속했고, 찻집에 있던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5.4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작은 지역에서도 모임이 일어났다. 5.4운동 시기에는 확실히 많은 사상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나는 이 시기가 중화민족 각성의 절정기였다고 생각한다. ‘5.4’시기에 제기된 ‘민주’, ‘과학’이라는 구호는 조금도 틀리지 않으며, 해방 후 ‘5.4’를 비난하려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자세히 연구해보면 ‘5.4’시기의 글들이 모두 전통을 배척하거나 유가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자를 타도하자’라는 외침은 ‘5.4’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고증된 바 있다.

5.4운동의 선봉은 백화문운동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이상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후위즈(胡愈之)는 이를 잘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글을 통해 ‘서유럽의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의 선봉이 어문운동이었던 것처럼, 중국의 계몽운동 역시 어문운동이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잡지(青年雜誌)》(1959년 창간, 후에 《신청년(新靑年)》으로 개명됨) '문학혁명론'을 제창하고, 과학(賽先生, Science)과 민주주의(德先生, Democracy)를 널리 알림.

5. 세인트존스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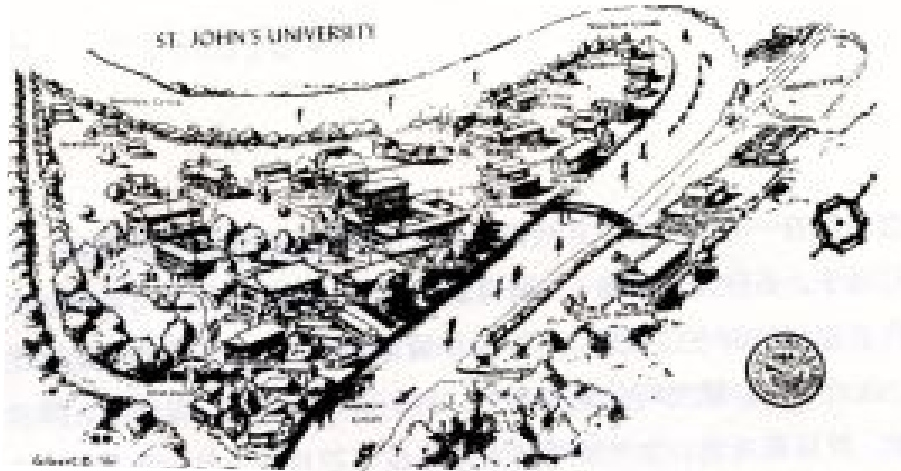
나의 대학 진학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다. 나는 두 대학에 원서를 냈고 모두 합격했다. 그 중 하나는 상하이 세인트존스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난징동남고등사범학교(南京東南高等師範學校)이다. 난징동남고등사범학교는 후에 동남대학교와 중앙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오늘날의 난징대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럼 나는 왜 두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된 것일까? 몇몇 선배들이 나에게 세인트존스대학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 학교의 입학시험에도 합격을 했다. 하지만 세인트존스대학의 학비는 한 학기에 200위안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고, 더욱이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우리 집 형편은 가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대학의 시험시기가 달랐던 그 시절, 나는 또 난징에 가서 입학시험을 보았고 그 학교에도 합격을 했다. 난징동남고등사범학교는 학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난징으로 갈 작정을 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던 누나의 동료인 주위권(朱毓君)누나는 내 사정을 듣고 나서 누나에게 “세인트존스대학에 합격하는 건 장원급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도 학비 때문에 갈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까워. 근데 나도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 엄마에게 빌려보는 건 어떨까? 일단 동생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다시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누나의 어머니는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구나. 그래도 저기 혼수를 저당 잡으면 200위안은 될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수를 내주셨다고 한다. 주위권 누나의 집은 우리 집과 가까웠고, 누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나를 무척 아껴주셨다. 어머니는 혼수를 뒷방에 놓아두셨는데 쓸데가 없어 몇 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으셨다고 한다. 《저당》이라는 연극에서 물건을 빌려와 저당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그 연극의 줄거리처럼 물건을 저당 잡아 세인트존스대학에 가게 되었다.

대학 입학시험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6일 동안 입학시험을 쳤고 매일 아침 8시까지 입실해야 했다. 본격적인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 12시까지 3시간 연속으로 시험을 보고, 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루

에 총 여섯 시간 동안 정신없이 시험지를 써 내려갔다. 시험범위는 미리 공지해주었는데, 학교 신입생 모집 책자에 보면 어떤 책을 공부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시험문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게다가 6일 중 단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5일은 전부 영어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무엇인가 궁리할 틈도 없이 펜을 한시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 잔머리를 굴렀다가는 시험문제도 다 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전에 공지한 내용이 모두 시험지 안에 있었고 추측을 요구하지도 지금처럼 문제를 꼬아서 출제하지도 않았다. 시험문제가 많기 했지만 있는 그대로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쓰는 속도가 느리면 모든 게 끝이 났다. 시험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올해 몇 명을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정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해에는 70점을 넘긴 학생이 아무도 없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않았던 적이 있다. 우리가 입학하던 해에는 점수만 넘기면 모두 받아주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임시 기숙사로 사용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지정해준 책들만 잘 공부하면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미있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세인트존스대학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했는데 한 친구가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제일 좋다고 알려 주었다. 그 당시 나는 창저우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촌스러웠고 양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몰랐다.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니 촬영용 양복이 준비되어 있긴 했지만 사진관 아저씨도 넥타이나 나비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몰랐다. 아저씨는 넥타이 위에 또 나비넥타이를 매주시고는 그대로 사진을 찍으셨다. 이 일로 인해 나는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진을 상하이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더니 친구는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다시 찍어야 되겠다고 사진을 도로 보내왔다.

1923년, 나는 쑤저우에서 기차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전차를 타고 정안사(靜安寺)까지 가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논밭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수레를 빌려 타야 세인트존스대학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인트존스대학은 상하이 관왕두(梵王渡), 바로 오늘날 중산공원 자리에 있었다. 수레는 도대체 어느



1879년, 장난(江南) 최고의 교회고등교육기관으로 불리는 세인트존스대학이 설립되었다. 중국과 서양의 문화에 정통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미국 성공회 상하이 교구 주교가 최초로 세운 세인트존스서원.

시절에 있었던 것인가? 아마 900년은 될 것이다. 때문에 수레를 타고 세인트존스대학에 간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900년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구식의 중국이 선교사 학교에 가서 외국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적으로 900년을 뛰어넘어야 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또 있다.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등록을 하러 갔는데 내 이름이 적힌 카드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카드에는 중국어도 있었고, 로마자도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상하이 방언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 같았다. 이는 학교가 정한 규칙으로, 교정 내 모든 건물이 이 규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학교는 로마자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알게 된 것이 바로 로마자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과학적인 관리법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인에게서 낯선 개념이다. 세인트존스대학의 총무부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 척척 잘 해냈다. 이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고, 이것이 바로 외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업무를 통해 나는 더욱 많은 것들을 배웠다. 미국은 모든 일들이 고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부유할까?”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미국에서



세인트존스대학 초기 졸업생 중에서, 정치·경제·의학·상공업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됨.

하루에 끝내는 업무량을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 처리했다. 미국의 부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일본의 한 조사팀이 미국인의 업무 처리 효율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몇 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인 한 명이 일본인 열다섯 명에 맞먹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정말 달랐다. 당시 전화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중국과 달랐다. 중국에서는 효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효율을 따지는 습관을 익혀 나갔다.

세인트존스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면 바로 전공이 나뉘지만 세인트존스대학은 외국 규정에 따라 1학년 때는 전공을 나누지 않고 모두 기초과목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전공의 구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의 방법에 따라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 세인트존스대학 본부는 문과와 이과로만 나누어지고 의과는 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1학년 때는 전공의 구분 없이 수업을 듣다가 2학년이 되면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1학년 때 기초과목을 수강했던 교실은 세 벽면이 모두 칠판으로 되어 있었고, 칠판은 위아래로도 움직

일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그 위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수학 수준은 꽤 높은 편이었고, 나도 수학을 곧잘했다. 한 외국 수학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과에 가라고 권유하셨지만, 친구들은 이과 말고 문과를 선택하라고 했다. 세인트존스대학은 본래 이과보다는 문과로 유명했기 때문에 문과가 아닌 이과를 선택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과를 선택했고, 실제로 그 당시 나는 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그때 나는 경제 중에서도 경제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웠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무역도 하고, 은행도 설립하고, 어느 정도 학문도 갖추어져 있어야 했지만, 지금처럼 한순간에 몇 천만 위안을 갈취당하는 바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자본주의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일찍이 무너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고, 때문에 나는 주로 이 분야를 공부했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에는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예들 들어, 학교 방문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우리 대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존스대학에서는 모든 과목마다 수업 외 읽기자료가 있었고 백과사전을 눈에서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이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때로는 선생님의 단 몇 마디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당시의 교육은 해방 후 소련의 교육과 달랐다. 소련의 교육은 강압적인 ‘주입식’교육이며 그 효과도 좋지 않았다.

세인트존스대학에 다닐 때,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바로 신문보기, 그 중에서도 영자 신문 보기이다. 어느 날, 한 영국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LIGHT AND TRUTH

The Rev. Gabriel F. Macran, D.D.

1. Seen - ing the sea - lands, far - as in the East - ing,
 2. Weir - to the sea - dom, taught by saints and sag - es,
 3. Their col - lege days done, scuffed by high an - ti - tom,

Scal - ing the moon - rain heights, hood - ing our fears' mad - ing,
 Cash - and took an - er - y claim, treas - ures of the a - ge,
 aimed 'gainst the face of men, vice and no - ger - stration,

Sees of the U - ni - vers, children of the earth - ing,
 No ar - cle - ing, wit - out's book, learn - ing still see ing - es,
 Our sea - side land to serve, this shall be our all - ean.

See - bers of light we come!
 See - bers of truth we come!
 Be light and truth shall come!

세인트존스대학 교가

“너희들 매일 신문 보고 있니? 보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 있니?”라고 물으셨다. 우리는 “그냥 보면 되죠. 무슨 방법이 있나요?”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신문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매일 신문을 볼 때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렴.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엇인가?’, ‘왜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 뉴스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만약 배경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빨리 책을 찾아보고, 책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백과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단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에 따라 신문을 읽었고, 신문 읽기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인트존스대학은 기초교육을 아주 중시했고, 내가 대학에서 배운 기초적인 문학과 세계사는 후에도 꽤 쓸모가 있었다. 내가 다닌 중학교도 중국인이 설립하긴 했지만, 세계사 뿐만 아니라 세계지리, 화학, 물리 교과서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기본소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날의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은 쓸데없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만 허우적대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교육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쉽다. 영어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를 가르치셨던 영어 선생님은 모두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셨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말하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영어를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이 세과목 이외에 다른 수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들도 많았다. 그 당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했던 우리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교육은 학생들의 시간을 쓸데없이 빼앗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중학교에서는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고, 통학을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통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다보면 정신이 모두 분산돼 버리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럼 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은 언제 공부하겠는가? 대학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곳이지 배우는 곳이 아니다.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나는 오늘날의 이러한 교육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며 반드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인트존스대학은 정치 분야 중에서도 특히 외교를 중시했다. 청나라 말기부터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외교계는 모두 우리 동창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구웨이쥘(顧緯鈞)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유명한 외교관이었다. 내가 졸업한 후, 여러 차례 외교계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지만, 아내는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했는데,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만약 내가 정치에 참여했다면 골머리를 썩었을 것이다.

세인트존스대학의 교정은 너무 아름다웠다. 지금의 상하이 중산공원(中山公園)이 바로 대학 교정이 있던 자리이다. 정원을 중요시하는 외국인선생님들 때문인지 교정은 커다란 나무들로 가득했다. 지금 와서 보면, 학교 규모가 작았음에도 정원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풍화원(兆豐花園)으로 불리던 정원의 이름은 지금의 중산공원으로 바뀌었고, 현재 그 많던 나무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6. 광화대학(光華大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세인트존스대학에 다닌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1925년 상하이 일본공장에서 일하던 구정홍(顧正紅)씨가 사장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5.30운동’이 일어났다. 상하이 상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상하이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후에 장쑤(江蘇)성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로 확산돼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나갔고 모두들 제국주의를 반대했다. ‘5.30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거세게 일어났는데, 상하이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선교사 학교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모든 학교가 시위를 벌였고 우리도 시위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총장님은 “학교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밖에 나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일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세인트존스대학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셨고, 그 중 몇몇만이 중국 선생님들이셨다. 결국 중국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 ‘자퇴 사건’은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며 당시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중국 학생들과 중국 선생님들은 각자의 짐을 싸들고 학교를 떠났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는가? 학교를 나온 이후 사회 각계에서 우리를 지지했고, 특히 난양공학(南洋公學)은 우리를 위해 광화대학(光華大學)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주었다. 당시 많은 저명한 교수님들의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불타고 있었고 그분들은 기꺼이 광화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주셨다. 물론 외국인 교수님들도 계셨고, 학교는 한동안 잘 운영되었다. 새 건물은 주로 화교들의 모금으로 지어졌는데, 후에 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광화대학을 포함해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세 대학을 모두 폭파시켜 버렸다.

나는 광화대학교에서 2년을 더 공부한 후에 결국 광화대학교에서 졸업을 했



1925년, 장쇼우용(張壽鏞), 왕핑가오(王豐鏞) 등이 광화대학(光華大學)을 설립하고, 장삐이웨이(張被推)가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화대학교는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었다. 자금도 여의치 않았고 학생들이 공부할 건물도 없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 후 공산당이 해방을 가져오면서 모든 사립대학은 폐교되었고, 우리는 큰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광화대학은 사실상 세인트존스대학의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대학은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쉬즈모(徐志摩) 선생님은 우리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광화대학 교수를 겸임하셨기 때문에 베이징과 상하이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결국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쉬즈모 선생님의 작품과 기풍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친구처럼 매우 돈독했다. 언젠가 나도 쉬즈모 선생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전 부인인 장요우이(張幼儀) 역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으셨다. 사모님은 전족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은 집에서 정혼한 분들이셨다. 후에 선생님은 루샤오만(陸小曼)과 재혼하신 후 상하이의 3층짜리 건물에서 사셨다. 1층은 영국식, 2층은 일본식, 3층은 인도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각 층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쉬즈모 선생님을 존경했고, ‘백화시(詩)는 쉬즈모 때에 성숙해졌다’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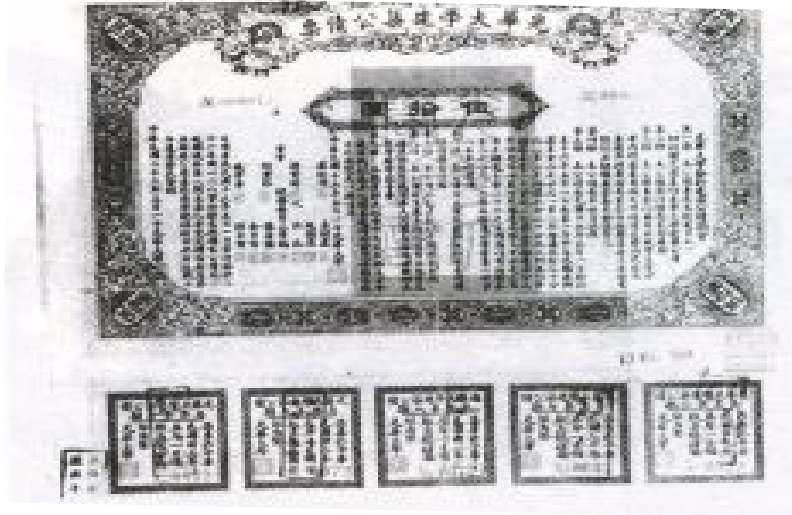
광화대학의 설립 취지는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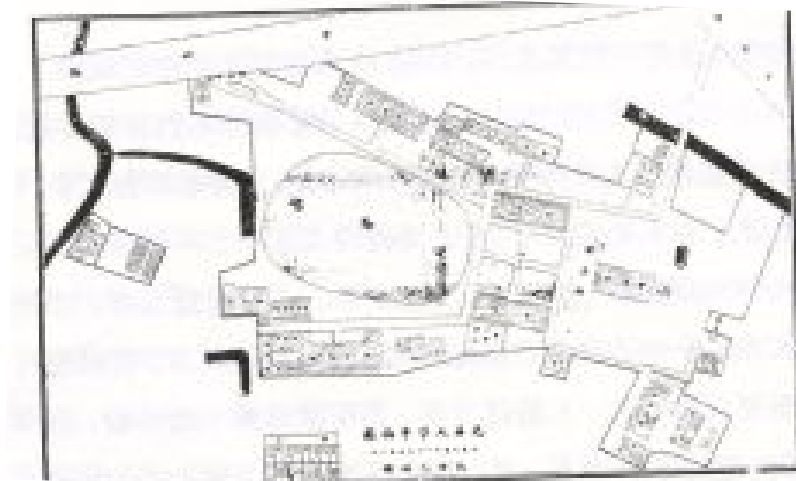
당시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쉬즈모 선생님의 수업은 듣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모든 저서를 보았고 그분을 존경했다. 나는 쉬즈모 선생님의 글들이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계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하이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아니니? 상하이를 벗어나 보는 게 어때?”라고 충고해 주었다. 당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한 곳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왜 그런가?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무감각해져 새로운 자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들도 대학과 계약을 맺을 때 3년 이상 계약하지 않으셨고, 3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와 지방으로 떠나셨다. 이는 해방 후의 사상과 완전히 상반되는데, 해방 후에는 한 곳에 평생 동안 쭉 눌러붙어 있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움직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원래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외국에 가서 공부할 계획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바로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 가운데 열 명 중 아홉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들은 비록 광화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모두 세인트존스 대학을 다녔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1926년 광화대학은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 공채를 발행함.



광화대학 평면도.

4/4 光 華 校 歌 F 調

<p> 3 3 3 1 3, 5 5 - 1 3 7 1 2 - , - </p> <p>(1) 鯉魚久盤 (2) 平原寬廣</p>	<p> 3, 5 5 - 1 6 7 - 6 5 3 2 5 - , - </p> <p>(1) 去以六月 (2) 風雨不動</p>	<p> 1 3 7 1 2 - , - 6 5 3 2 5 - , - </p> <p>今已化爲 有基氣在</p>	<p> 2 - , - 5 - , - 4 5 4 - 3 2 1 - </p> <p>鵬 田</p>
<p> 5 6 5 3 5, 6 5 - 5, 6 5 3 4 5 4 - </p> <p>(1) 我有前堂 (2) 科分教育</p>	<p> 5, 6 5 - 5, 6 - 5, 6 6 5 3 2 1 - </p> <p>義與禮 寬新傳</p>	<p> 5, 6 5 3 4 5 4 - 3 2 1 - 2 - 0 - </p> <p>營造文明 更添文理</p>	<p> 4 5 4 - 3 2 1 - 2 - 0 - 1 - , - </p> <p>傳幽靈 究人天</p>
<p> 5, 6 5 3 5, 6 - 5, 6 6 5 3 2 1 - </p> <p>(1) 我有後堂 (2) 復以商聖</p>	<p> 5, 6 - 5, 6 6 5 3 2 1 - 2 - 0 - </p> <p>周與孔 據其用</p>	<p> 5, 6 6 5 3 2 1 - 2 - 0 - 1 - , - </p> <p>勞德敦厚 集才分道</p>	<p> 3 2 1 - 2 - 0 - 1 - , - </p> <p>施無窮 揚先輝</p>
<p> 3 3 3 1 3 6 5 - 1 3 7 1 2 - 0 - </p> <p>(1) 願國之光 (2) 父兄師保</p>	<p> 3 6 5 - 1 3 7 1 2 - 0 - 1 - , - </p> <p>遠有雄 偉心力</p>	<p> 1 3 7 1 2 - 0 - 1 - , - </p> <p>重任在吾 乃敢美且</p>	<p> 2 - 0 - 1 - , - </p> <p>彰 全</p>
<p> 3 1 3 5 1, 6 7 - 3 5 4 2 1 - , - </p> <p>(1) 中華民氣 (2) 光我中華</p>	<p> 1, 6 7 - 3 5 4 2 1 - , - </p> <p>原俊偉 萬體尔</p>	<p> 3 5 4 2 1 - , - </p> <p>奮起自爲 毋讓他人</p>	<p> 1 - , - </p> <p>雄 前</p>

(前) 許愷 楊勝源先生製譜
重怡章先生歌詞

1930년 이전의 광화대학 교가



1924년, 단체사진(왼쪽 첫 번째 장원희, 오른쪽 첫 번째 장위안희)

이유로 계속 유학을 미루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의 진로는 아주 좋았다. 우리 학교 장쇼우용(張壽鏞) 총장님께서서는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총장실에 비서 한 명이 모자라 학교 내에서 모집 시험을 실시했고 거기에 내가 합격되어 방과 후 시간마다 총장님 비서를 한 적이 있었다. 이렇다보니, 총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내가 졸업하자 총장님은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떨겠니?”라고 제안하셨다. 나는 광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총장님의 업무를 도와드리곤 했다. 얼마 안 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장쇼우용 총장님은 본래 청말 시기에 높은 관직을 지내셨다. 학식이 매우 높아서 후에 총장님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벼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총장님에게는 손해되는 일이었다. 그럼 왜 총장님으로 모시게 된 걸까? 당시 대학 총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명성도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이런 분은 굉장히 보기 드물었는데, 상하이 각계에서 총장님을 추천했다. 쑹즈윈(宋子文)이 재정부 장관이었는데, 총장님은 재정부 차관을 역임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모을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고, 학술적 지위도 매우 높으셨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멩씨엔청(孟憲承) 선생님께서(해방 후 선생님은 상하이화동사범대학(上海華東師範大學)의 총장님이 되셨다) “광화대학에 계속 있으면 당연히 안정감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기가 사라져 버린단다.”라고 말씀하셨다. 외국 사상을 잘 이해하고 계셨던 선생님은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이며 직업을 바꾸면서 경력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충고해 주셨다. 선생님은 내가 우시(無錫)에 새로 설립한 장쑤민중교육학원(江蘇民衆教育學院)으로 가기를 바라셨는데, 이 학교는 새로운 이론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였다. 학원의 전 원장님께서 떠나시면서 멩씨엔청 선생님께 원장 자리를 부탁했고, 선생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다. 우시에 내려 간지 얼마 안되 저장(浙江)에서도 민중교육학원을 설립했고, 선생님은 또 나를 항저우(杭州)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나는 선생님과 계속 함께 하게 되었다. 그때는 새로운 교육 이론으로 새로운



1930년, 상하이 난상에서 장원허.

인물을 키워내는 시기였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이념이었으며, 귀족이 아닌 대중을 향해있었다. 본래 교육은 모두 귀족만을 위한 것이었다.

항저우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장(浙江)과 장쑤(江蘇) 군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철도가 끊겨버렸다. 이로 인해 쑤저우에 있던 아내는 상하이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쑤저우와 항저우를 잇는 길은 멀쩡했던 터라 항저우 즈장대학(之江大學)에서 청강을 하게 되었다. 즈장대학 역시 선교사 학교였고, 나는 그 학교의 총장님과도 아는 사이였다. 당시 선교사 학교의 총장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마치 친형제처럼 아주 돈독했다.

7. 로마자표기운동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언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인트존스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의 언어생활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인트존스대학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로 얘기했고, 중국 문학과 역사 수업에만 중국어를 사용할 뿐 다른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영어의 편리함과 자모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알게 되었고, 일련의 일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는 단순히 자모의 문제가 아닌 관리학의 중요한 여건이 되었지만, 한 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졸업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은행에서 일하던 중 로마자표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주동적인 것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당시 내가 썼던 글들을 보면 아주 유치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내 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렇게 로마자표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운동에 참여한 후 나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개혁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로마자표기운동은 오늘날 그 장단점이 매우 명백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방언의 로마자표기는 취치우바이가 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소련은 이미 많은 민족의 언어가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취치우바이는 중국의 방언을 민족어로 보았고, 국어운동을 반대하는 동시에 방언의 로마자표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방언의 로마자 표기는 중국에서 추진될 수 없었다. 상하이에는 상하이 방언의 로마자표기운동 뿐만 아니라 북방 언어의 로마자표기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사람들은 북방 언어의 로마자표기에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상하이 방언의 로마자표기에는 무관심했다. 상하이 사람들은 상하이 방언의 로마자표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지방의식이 아닌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자표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 한명이 바로 니하이슈(倪海曙)이다. 그는 로마자표기운동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나는 로마자표기운동에 합류한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방



1930년, 잡지 표지 모델이 된 장원희



장원희의 청년시절 모습.

언을 각 지역에 국한되어 따로따로 연구해 버린다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되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의 로마자표기 방안을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의 주장은 후에 로마자표기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북방 언어의 로마자표기를 보급할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상하이 방언의 로마자표기를 얘기하면 그냥 지나쳐가기 일쑤였는데, 이는 바로 중국인에게는 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었다.

내가 약간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천왕따오(陳望道)는 나의 의견이 참신하다며 지지해주었다. 나중에 내가 문자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도 그의 격려가 큰 역할을 했다. 후에 그는 푸단대학(復旦大學)의 총장이 되었고, 나는 푸단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당시 로마자표기운동의 영향은 대단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50여 개의 도시에 로마자표기 모임이 있었고, 동남아 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로마자표기 모임이 있을 정도였으며 홍콩은 운동의 중점지역이었다. 과거 로마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던 대중들과는 거리가 먼 문자였지만, 로마자표기운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보급되었고, 심지어 노동자들까지도 운동에 참여했다.

중국에서 1933년에 시작된 로마자표기운동은 세계어학회에 의해 중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로마자표기운동이 발전하는 반면, 세계어(1887년 공포된 국제 보조어, 에스페란토-역주)는 오히려 발전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 당시 세계어 역시 새로운 사조로서, 우리는 모두 세계어를 배웠었고 지금도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크게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시 에 세계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결국 진정한 세계적의 언어로 거듭나지는 못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세계어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엔이 다섯 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면서(현재는 총 6개) 세계어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 정치, 과학기술, 상업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니 더 이상 쓸 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세계어를 연구했었지만 후에는 그만 뒀다.

8. 나의 아내, 장원허(張允和)

장씨 집안 네 자매의 명성은 대단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미국 예일대학의 진안평(金安平)교수가 《허페이이의 네 자매(合肥四姊妹)》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였다. 장씨 집안은 대갓집으로서, 아내의 증조부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의 증조부님의 존함은 장수성(張樹聲)으로, 이홍장(李鴻章)과 전쟁에 나가면서부터 벼슬길에 오르시게 되었고, ‘장씨 집안’과 ‘이씨 집안’ 모두 명망이 높았다. 어느 날, 이홍장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청나라 조정은 이홍장에게 3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 상을 지내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홍장이 부모상을 지내는 동안 그의 직무는 증조부께서 대신 맡아 하셨다. 아내의 증조부께서는 직예총독(直隸總督), 양광총독(兩廣總督, 광둥(廣東)과 광시(廣西)를 관리하던 총독-역주), 양강총독(兩江總督, 저장(浙江)과 장쑤(江蘇)를 관리하던 총독-역주) 등 주요 관직을 담당하셨고, 관직은 조부에게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삼 대째 장인어른의 성함은 장우링(張武齡)으로, 장인어른은 관직을 이어받지 않으셨는데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셔서 새로운 사상의 영향을 받으신 까닭이었다. 장인어른은 집안이 큰 재산과 명성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된다고 안후이(安徽)를 떠나 쑤저우에서 신식교육을 시작하셨다. 1921년, 장인어른은 낙익여자고등학교(樂益女子高等學校)를 설립하셨고, 학교는 아주 잘 운영되었다. 장인어른은 당시 저명한 교육가이셨던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장명린(蔣夢麟) 등과 친구이셨는데, 그분들은 장인어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장인어른은 외부 기부금을 일체 거절하셨고, 기부금을 얻어내려고 머리를 짜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기부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 본가에서도 장인어른에 대해 “저 사람 참 미련하군, 자기 자식에게 돈을 써야지 남의 자식을 위해 돈을 써서 뭐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사실 장인어른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앞서 있던 분이셨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재산을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도 본인의 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내의 형제는 6남 4녀였고, ‘장씨 집안의 네 자매’는 당시로서 비교적 좋은 교육을 받았다. 신식 대학 교육 뿐만 아니라, 전통 국학에 대한 기초도 튼튼했다. 장인어른이 세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예성타오(葉聖陶)는 “지우루(九如) 골목 장씨 집안의 똑똑한 네 자매에게 장가가는 사내는 분명 평생 행복할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다.

지우루골목은 쑤저우(蘇州)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아내의 집은 학교와 바로 이어져 있었다. 해방 후, 쑤저우 정부는 골목의 집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고 높은 건물을 지어 정부 청사로 사용했다. 아내가 살던 집도 공유지로 전환되었지만, 지금도 처남은 그곳에 살면서 옛날 집에 있었던 소위 ‘아랫방’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쑤저우 중심부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우루 골목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찾으면 골목도 바로 보인다. 그 옛날 쑤저우에는 조금만 가면 공원과 도서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청년시절에는 하천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길을 내기 위해 메워버렸는데, 사실 이것은 잘 못된 일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있는 반면 아내의 집안 상황은 점점 좋아졌는데, 이는 모두 태평천국의 난과 관련이 있었다. 증조부께서는 원래 외지에서 관직을 맡으셨다가 창저우로 돌아오신 후 방직과 직물공장, 전당포를 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태평천국군이 성에 들어닥치려 하는데도 중앙정부는 이들을 진압할 계획조차 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지역 군대가 연합해 대항하기 시작했다. 성 안과 성 밖의 왕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성안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經費)를 증조부께서 혼자 부담하셨다. 창저우를 공격하는데 실패한 태평천국군들은 난징을 장악해 태평천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2년 후 또 다시 창저우를 공격해왔고, 결국 창저우는 함락됐다. 증조부께서는 그때 물에 뛰어들어 자진하셨다. 태평천국이 멸망하자 청나라는 증조부께 세습운기위(世襲雲騎尉)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는데, 이 벼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조정에서는 그 자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해야 했다.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외지에 계셨던 조부께서는 난이 끝나자마자 돌아오셨고, 관직을 맡지 않으시고도 매년 조정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셨다.民国 시기가 되자 우리는 더 이상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당시의 전당포와 공장부지가 남아있긴 했지만 집은 대부분 태평천국의 난 때 불타버리고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나마 남아 있



1932년, 항저우(杭州)에서 장원허



1932년, 항저우(왼쪽부터 리한추(李漢初), 위귀전(余國楨), 장원허)

는 땅의 일부를 팔아 몇 년 동안 생활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땅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당시 우리 집은 대갓집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는 후에 국학관을 세우셨는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은 가정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대갓집을 유지하시는 것은 당연히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의 가세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가장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학비를 내는 것조차 너무 버거웠다.

아내의 집과 우리 집은 모두 쭈저우로, 아내는 내 여동생 저우쥘런(周俊人)이 낙익여자중학교를 다닐 때의 같은 반 친구였다. 아내가 여동생을 보러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집 형제들은 아내의 형제들과 자주 놀러 다니곤 했는데, 쭈저우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은 바로 창면(閻門)부터 후치우(虎丘)까지, 멀게는 등산(東山)까지였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였는데 중간에 강도 있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고, 자전거나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었다. 특히 나귀를 타고 후치우에 가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았다. 아내와 나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휴일이 되면 우리는 장인어른의 학교에서 놀 수 있었는데, 그 곳은 공놀이를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아내의 집은 아주 개방적이어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친구가,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친구가 있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도 억압될 게 없었다. 나는 혼자 놀러가지 않고 꼭 여러 명이서 함께 갔다.

장씨 집안 네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곤곡(崑曲)을 배웠다. 당시 곤곡은 가장 고상한 취미로, 보통 설이나 명절에 노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장인어른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고, 차라리 딸들에게 곤곡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다. 처음 배울 때부터 곤곡에 재미를 느꼈던 네 자매는 후에 점점 더 곤곡에 매료되었다. 곤곡의 문학성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시사(詩詞)언어로 구성된 곤곡에는 훌륭한 문장들이 많은데, 이는 고문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내는 노래 뿐만 아니라 연기도 곧잘 했다. 후에 위평보(俞平伯)의 《홍루몽(紅樓夢)》 연구가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을 후인 1956년, 우리는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위핑보는 우리 부부에게 베이징곤곡연구회를 창설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었다. 애호가들이 한 데 모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예전으로 말하자면 꽤 고상한 취미였고, 삶에 의미를 붙여넣기도 했다. 창설 초기 위핑보가 회장으로 있었던 곤곡연구회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연구를 중단해야 했고, ‘문혁’이 끝나고 위핑보는 본인 대신 나의 아내를 회장으로 추천했다. 곤곡연구회는 지금까지 오우양쥬스(歐陽中石)의 딸이자 아내의 제자인 오우양치밍(歐陽啓名)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오우양치밍은 운이 없었는데, 그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자산계급의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치밍은 어쩔 수 없이 시계 고치는 일을 했었다. 다행히 ‘문화대혁명’이 끝나자마자 친구의 소개로 일본으로 건너가 오랫동안 유학생활동을 한 오우양치밍은 귀국한 후 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나도 곤곡회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다. 반면 아내는 아주 적극적으로 곤곡의 연구, 연출, 편집에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나도 그녀와 함께 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그녀의 집에서는 《수(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 친척들끼리 소식을 주고받았다. 후에 잡지는 정간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아내가 80여 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잡지를 재간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 역시 친척들의 소식을 주고받기 위함이었다. 잡지가 재간되고 예즈산(叶稚珊)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간행물이라며 신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했고, 출판업계의 대가인 판용(範用)씨가 이를 보자마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후에 잡지는 《랑화집(浪花集)》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지만, 편집을 맡았던 아내와 처제 장짜오허(張兆和)는 《랑화집》이 출판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공교롭게도 아내가 93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보다 한 살 어린 장짜오허도 그 이듬해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책의 후기는 내가 맡았다.

9. ‘물 흐르듯’ 찾아 온 사랑

아내와 처음 알게 된 때부터 결혼하기까지의 8년의 시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쑤저우에서의 시간으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하이에서 친구로 지내던 시절로, 그때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항저우(杭州) 민중교육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아내는 원래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장(浙江)군벌과 장쑤(江蘇)군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쑤저우와 상하이를 오가는 교통이 모두 마비되어 버렸고, 그 바람에 아내는 항저우 즈장대학(之江大學)에서 청강을 했다. 바로 이 시기 항저우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내가 아내와 친구가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연히 다가왔다. 처음에 쑤저우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내가 상하이로 대학을 갔고, 얼마 후 아내도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녔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내가 항저우로 가고 나서 아내는 또 나를 따라 항저우로 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관계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했는데, 오늘날처럼 질풍노도의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찾아 온 사랑이었다.

아내의 집은 우리 집과 그다지 멀지 않았고 학교와 붙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내의 집에 가서 놀았다. 장인어른도 일찍부터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에게 매우 잘 대해주셨고, 특히 장인어른은 아주 개방적인 분이셨다. 자녀들의 혼사에 대해서도 연애결혼을 주장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집에 찾아와 혼담을 얘기하면 “혼인은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부모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오.”라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장인어른의 사상은 당시로서 매우 진보적이셨는데 이는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의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초빙한 교사가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그만이지 정치적 배경은 상관 없다는 자유주의를 고집하셨는데, 이 역시 차이위안페이의 영향 때문이었다.



1932년 봄, 항저우에서 장원허.

당시에는 몰랐지만, 공산당이 쑤저우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구를 설립한 곳이 바로 낙익여자중학교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장인어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항저우에서 시작되었고, 쑤저우와 상하이에서는 단순한 친구 관계에 불과했다. 상하이에서 선생님을 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었다. 대충 장인어른이 우리 누나 편에 무엇을 보냈는데 잘 받았냐는 내용이었다. 아주 평범한 편지였지만, 아내는 우리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면서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언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언니는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답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연락하게 되었다. 내가 보냈던 그 편지는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후에 실제로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적었다. 학교에 다닐 때 아내와 나는 서로 다른 학교에 다녔고, 내가 졸업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아내는 계속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당시의 방학은 지금보다 길었는데, 나는 여름방학 내내 쑤저우에 머물면서 아내와 자주 놀러 다니곤 했다. 항저우에서 나는 일을 하고 아내는 학교를 다녔다. 그곳은 지역이 좁아 만나기도 편리했고 주변 경치도 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주말마다 시후(西湖)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후는 정말 연인들에게 최고의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의 항저우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사찰도 과거의 웅장함을 느낄 수가 없다. 고대에 사찰은 여관으로 사용되었는데, 《서상기(西廂記)》에도 상국(相國)부인과 가족들이 사찰에 머물렀을 때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사람들은 사찰에서 사랑을 꽃 피웠고, 연극을 보거나 사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 불교가 흥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사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내와 함께 항저우에 있는 영은사(靈隱寺)에 가기 위해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당시 영은사는 매우 웅장했고 주변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 몇 개의 건물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시절의 연애는 지금과 달리, 두 사람은 적어도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걸었고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 시절은 자유연애라는 것이 막 시작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려 한다. 어떤 스님이 우리



1933년, 저우유광, 장원허 부부의 신혼 모습.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것이었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나무 옆에 앉았는데 스님도 우리를 따라 옆에 앉더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스님이 나에게 물었다. “이 외국인은 중국에 온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아내의 코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약간 높아서 그랬는지 스님은 아내를 외국인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내가 농담으로 “3년 됐어요.”라고 말하자 스님은 “어쩐지 중국말을 너무 잘하더라!”라며 완전히 속아 넘어 갔다.

아내는 숨기려 하는 것이 있어도 금방 말해버려서 쉽게 들통나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쾌취(快嘴) 이취련’(중국 송·원 화본소설의 주인공-역주)이라고 불렀다. 아내의 전공은 역사학으로, 그녀는 역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고서를 읽었기 때문에 고문에 대한 기초가 탄탄했고, 《맹자(孟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할 정도로 나보다 고문을 더 많이 읽었다. 아내는 종종 나에게 공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는 나보다 더 늦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보다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지도했고, 아내는 수많은 외국 문학 번역서를 읽으면서 외국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곤곡과 중국 고대 문학의 영향도 적잖이 받았다. 음악에 있어서 아내는 중국 고대 음악을 좋아했고 나는 서양 음악을 좋아했다. 1927년인가 1928년 쯤 되는데 여름, 우리가 아직 친구 사이였을 때 나는 아내에게 함께 상하이에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러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었다. 그때 아내는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졸업을 한 상태였다. 음악회는 프랑스 조계(租界)에 위치한 프랑스식 정원에서 열렸고, 한 사람씩 의자에 누워 듣는 것이었는데 표 한 장에 2위안으로 아주 비쌌다. 아내는 한참을 누워서 듣더니 결국 잠들어 버렸고, 이것은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아내는 서양 음악에 대해 나만큼 관심이 없었고, 나 역시 중국 음악에 대해 아내만큼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결혼한 후, 아내가 중국 음악을 듣고 있을 때면 나는 옆으로 가서 같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내가 서양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내가 곁에 와서 들었다.

내가 자란 시대보다 더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대에 살았던 아내는 중국 최초로 여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대열에 속했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풍금을 배웠는

데,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큰 누나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일본에서 미술학원을 졸업했고, 그림 실력 또한 대단했다. 큰 누나와는 달리 나는 그림이 아닌 바이올린을 배웠다.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고, 가볍게 즐기면서 어떤 연주가 좋고 나쁜지만 구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다. 일본 유학 시절, 한 바이올린 선생님이 나에게 하루에 네 시간씩 연습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 나는 “안됩니다. 이것은 취미일 뿐이고, 저는 제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음악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사회적으로 이미 자유로운 연애가 유행하고 있었고, 특히 장인어른은 완전한 자유화를 추구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당시의 연애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여자 친구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야 했고, 어깨동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풍조의 변화는 천천히 한 발짝씩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10. ‘거배제미(舉杯齊眉)’

결혼하기 전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가난한 우리 집에 시집오면 아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 아내는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며, 여자도 독립을 해야지 남자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 아내의 생각은 비교적 깨어있는 것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상하이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네 자매 중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다. 평소 결혼식에 돈을 낭비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우리의 결혼식은 매우 간소했다. 친척 중 한 분이 결혼식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때 결혼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해야 했는데 우리는 상하이 청년회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음식을 대접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 어머니는 참석하셨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시절을 빼고 우리는 주로 상하이에 거주했다. 아내의 친절은 쭉저우였지만 장인어른은 종종 상하이에 들르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던지라 항상 방을 두 개씩 빌리셨다. 다른 가족들도 재미있는 연극을 하는 토요일에 맞춰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상하이에 자주 오곤 했다. 결혼 후, 나는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은행에서도 일을 했는데, 은행은 회식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저녁에는 수업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여섯 시간을 준비해야 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주로 교사 일을 했다. 글 쓰는 재주가 타고 난 아내에게 그해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고, 아내의 칼럼 중에서도 《여자는 꽃이 아니다》는 꽤 널리 알려진 글이다. 당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회사에 여자 직원 한 명이 있는 것을 가리켜 ‘꽃병’이라고 불렀었다. 부업으로 칼럼을 쓰는 아내에게 글 쓰는 것은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는 일종의 추진력이 된다. 한 사람



자매간의 우정(장원희와 장위안희).

도 어떤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도, 놀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추진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흥미는 가끔씩 맹목적이기도 하고 목적을 지니기도 하지만, 일단 흥미를 느끼고 나면 업무의 의미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

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얼마동안 우리는 쑤저우에서 꽤 근사한 집에 세 들어 살았다. 쑤저우의 한 대갓집에서 집을 지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그 집에 살 사람이 없게 되자 우리에게 세를 준 것이었다. 그 곳의 이름은 우취에차오농(烏鵲橋弄)으로, 집 앞 논밭에 농부가 장미꽃을 심어놓아 대문을 열면 장미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면서 아름답고 향긋한 꽃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장미꽃은 어디에 쓸까? 꽃잎을 따다가 차에 넣으면 화차, 즉 장미꽃차가 된다. 꽃을 심는 농부를 화농이라고 하는데, 화농들은 부자였다.

쑤저우에서의 생활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의 쑤저우는 그야말로 엉망이었고, 최근에서야 재건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 쑤저우의 모습을 보아 왔던 벨기에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의 “어디에 가보고 싶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벨기에 총리는 “쑤저우에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쑤저우에 도착한 벨기에 총리는 연신 “아닌데, 아닌데.”라고 중얼거리며, 여기도 저기도 모든 것이 자신이 책에서 본 쑤저우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안이 물줄기로 가득했던 물의 고향 쑤저우도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쑤저우뿐만 아니라 항저우, 장난(江南)은 모두 육로보다 수로를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어릴 적 우리 집 뒤편으로는 강이 흘렀고, 앞쪽으로는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아주 많았다. 쑤저우에도 이백여 개의 다리가 있고, 지금도 양저우 하면 ‘24교(橋)의 달 밝은 밤’을 빼놓을 수 없다. 항저우에도 다리가 아주 많다. 신해혁명 이후, 하천들이 하나씩 메워지면서 물의 고향에 물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항저우에는 시후(西湖)가 남아있지만 쑤저우의 강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동팅산(洞庭山) 일대와 창먼(閶門) 일대로는 잘 조성이 되어있다. 다행히 장난(江南)의 몇몇 작은 고장에는 아직도 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풍취가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결혼한 지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친척들이 가정부에게 우리 부부에 대해 캐묻곤 했는데, 가정부의 얘기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우리라고 왜 말다툼을 안 하겠는가? 하지만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부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또 몇 시간씩 싸운 적도 없고, 보통 두 세 마디면 싸움은 끝이 났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평소 싸우는 이유는 우리 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었다. 정말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아주 화목했다. 베이징으로 이사를 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오전 10시에 함께 차를 마셨다. 가끔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과를 즐기기도 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거안제미(擧案齊眉)대신 ‘거배제미(擧杯齊眉)’를 했는데, 재미 삼아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표현이었다. 오후 3~4시가 되면 우리는 또 차를 마시며 ‘거배제미’를 했다.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기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우리 부부가 ‘거배제미’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 했는데, 바로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 부부는 “화내지 마시오!”라고 말한 한 외국 철학자의 말에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딱히 생각나는 방법은 없었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한 몫을 했다고 믿는다. 그 외국 철학자는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만약 자녀가 저지른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부부가 다투게 된다면, 실제로 이 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된다. 우리는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평탄했던 것 같다.

내가 가장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바로 아들 저우샤오핑(周小平)의 교육이었다. 샤오핑은 쑤저우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도 상하이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와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후 과학원에 들어갔다. 원래 샤오핑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었지만 해방이 되어 갈 수 없었고, 과학원에서 그를 소련으로 연수 보냈다. 후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샤오핑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가장 좋은 기상연구소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다. 과학을 연구하는 아들에게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손녀 저우허칭(周和慶)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지냈던 손녀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곁을 떠나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반동학술권위’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우리와 함께 지내기에 손녀가 불편해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후로, 손녀는 ‘문화대혁명’의 사상에 심취해 우리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우리도 더 이상 손녀를 가르칠 방법이 없었다.

11. 네 자매

우리 부부에 비해, 구완지에(顧傳玠)와 처형 장위안허(張元和) 부부는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하이에서 대학을 졸업한 처형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 해 소위 ‘캠퍼스 퀸’이었고, 주위사람들은 처형을 떠받들었다. 게다가 장씨 집안의 사회적 위치는 처형이 결혼 상대를 찾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평범한 남자들은 말도 붙이지 못했고, 처형에게 적합한 상대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처형은 곤곡을 아주 좋아했는데 노래와 연기에 모두 소질이 있었다. 구완지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곤곡배우였고, 처형이 곤곡을 좋아했던 터라 형님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게 되었다. 처형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형님과 달리, 당시 배우의 지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처형은 형님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미루다가 항일 전쟁 시기가 되서야 상하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를 하나 들자면, 친척 중 한 분이 상하이에서 은행 이사장을 맡고 계셨는데, 재산도 아주 많은 분이셨다. 고고학자이기도 한 그 친척 분은 상하이에 있는 자신의 7층짜리 건물 맨 위층을 골동품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셨고, 그 중에서도 갑골문(甲骨文)을 가장 애지중지 하셨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상하이에 갔을 때, 그 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친척 분은 내가 젊었을 때 경제학을 공부했고 당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나 처형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친척 분은 처형 부부를 문전박대하셨고, 그 바람에 처형이 매우 난처해했었다. 이 일화를 통해 처형의 결혼이 늦어졌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술가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던 봉건사상이 그 시대에 깊게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처형과 형님은 대만으로 떠났다.

셋째 장짜오허(張兆和)는 후스(胡適)가 교장으로 있던 중국공학(中國公學)을 다녔고, 선충원(沈從文)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충원은 처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구애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처제는 편지를 뜯어보기는



큰언니 장위안희.

커녕 화를 내며 편지를 들고 교장실로 찾아갔다. “교장선생님, 이것보세요. 선충원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구요!” 후스의 생각은 처제와 달랐다. “선충원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시잖니. 너를 함모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그때는 사상의 전환기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동시에 존재했다. 후스는 심지어 “나는 안후이(安徽) 사람이다. 네 아버지 고향도 안후이시지? 네 아버지와 너의 결혼문제에 대해 상의해도 된다면 내가 가서 말씀드리마.”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처제는 불같이 화를 내며 교장실을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고 결국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도 서로 마음이 잘 맞았다. 항일 전쟁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커다란 요동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장짜오허와 선충원은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우리 부부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는 사회적 기풍이 아주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처제의 결혼식은 아마 우리가 결혼할 때보다 더 현대적이고 간소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수를 하나도 장만하지 않았었다.

막내 처제 장충허(張充和)는 베이징대학에 다닐 때, 보한스라는 한 독일계 미국인 선생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선충원의 집이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장충허는 토요일만 되면 언니네 집을 방문했고, 그 곳에서 보한스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중국 한대의 부(賦)를 연구하던 보한스는 한부(漢賦)를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번역에 꽤 소질이 있었다. 그는 또 고대 그리스 문자를 연구했고, 베이징대학에서는 그리스 문자를 가르쳤다. 장충허와 보한스는 후에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들의 결혼식 역시 아주 간소했다. 막내 처제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다.

이 네 쌍의 부부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막내 처제 장충허를 제외하고, 구완지에, 장위안허, 장원허, 선충원, 장짜오허, 보한스는 모두 나의 곁을 떠났다. 전통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막내 처제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녀가 없으셨던 아내의 작은할머님은 막내 처제를 특별히 좋아하셨고 처제를 양자로 삼으셨다. 작은할머님께서 일류 국학가를 집으로 초대해 가르친 덕분에



1928년, 상하이에서 셋째 장짜오허.



소녀 장충허.

막내 처제의 고문(古文)에 대한 조예는 다른 언니들보다 뛰어났다. 2004년 10월, 막내 처제는 중국으로 돌아와 베이징과 쑤저우에서 개인 서예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12. 나의 동서 선충원(沈從文)

선충원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친척 중 한 아이가 동서에게 말했다. “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정말 잘 됐구나. 나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우리 꼬마 아가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대단한걸.”이라며 축하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 동서네 가족은 베이징에 거주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우스갯소리로 동서는 베이징파(派), 나는 상하이파(派)라고 말했었다. 해방이 되고 우리 가족이 베이징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서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해방 전에 나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와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5년 우리 가족이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동서네와 같은 곳에 살다 보니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동서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상시(湘西) 평황(鳳凰)에서 태어났다. 그 곳은 지금도 외진 곳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본래 선비 가문이었던 그의 집안의 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동서는 어렸을 때 많은 고서들을 읽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다가 결국 군대 행정병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군대의 상황도 매우 열악했던 지라 동서는 종이 박스를 책상으로 삼아 글을 쓰곤 했다. ‘5.4’시기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많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고, 그 중에서도 외국 소설이 주를 이루었다. 동서는 번역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번역서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후에 동서는 방법을 강구해 베이징에 입성했는데, 그야말로 ‘시골 촌놈이 상경’하게 된 것이다. 동서의 대단한 점은 바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데 있다. 동서는 신식학교에 가 본 적도 없고 영어나 불어를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동서는 수많은 프랑스 번역서들을 접했고,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마치 프랑스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들 선룡주(沈龍朱)를 안고 있는 장짜오허와 큰언니 장위안허(오른쪽)의 모습.

“사람이 67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볼까요? 우리는 13년 동안의 업무 시간과 17년 동안의 여가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먹고 자는데 허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재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17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재목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아주 일리가 있다.

동서에게는 대단한 점이 또 있다. 해방 후, 귀모뤄(郭沫若)는 동서를 ‘분홍색 문인’이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그 당시 후스(胡適)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불똥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던 동서에게까지 옮겨 붙어 결국 동서는 고궁(古宮) 박물관 해설사로 좌천됐다. 다른 이들은 모두 동서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개의치 않았다. 동서는 “이렇게 많은 고대 유물들을 볼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라며 고대 복식(服飾)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후에 《중국고대복식연구(中國古代復飾研究)》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일화는 동서가 도량이 넓고 조금의 거드름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서에게 본받을 점이다. 동서가 2년만 더 늦게 세상을 떠났어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은 바로 동서가 되었을 것이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장원희.

13. 일본유학

나는 세인트존스대학과 광화대학을 졸업했다. 이 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었다. 결혼을 한 후, 장인어른께서 아내에게 2천 위안을 주셨는데, 당시 이 돈은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아내와 함께 상의한 결과 우선 이 돈을 쓰지 말았다가 유학 가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천 위안으로 미국을 가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유학을 선택했다.

그 당시 일본어는 아주 쓸모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대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는 불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불어는 오히려 써먹을 데가 없었다. 미국에 있을 때, 프랑스 책이 한 권 출판됐다는 광고를 보고 그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었다. 점원은 그 책은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았고 서점에는 영문 번역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영문 번역본을 샀고, 그 후에도 불어 원서는 보지 않았다. 불어와 영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불어를 사용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많은 국제회의에서 영어와 불어 이 두 가지 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불어보다는 영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불어는 아주 훌륭한 언어이고, 또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배워도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 네 가지 언어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이다. 현재 러시아어는 비전이 없으며,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요즘에는 영어를 배운다. 다음으로 스페인어는 문화적 배경이 상당히 부족한 언어이고, 불어는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하지만 영어와의 경쟁에서 실패했다.

유학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배울 수 있다.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느린데 영어가 더욱이 그렇다. 둘째, 중국과 다른 외국의 학술 환경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유학을 가든 안가든 중국에서도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공부란 사실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하



1933년, 장원허(오른쪽)와 여성교육을 제창한 링하이샤(凌海霞)의 모습.



1935년, 아들 저우샤오팡을 안고 있는 장원하.

나하나 관여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선생님들은 단지 학생들에게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다.

청나라 말기부터 유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중국에는 대학이 없었다. 후에 선교사 학교가 세워지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굳이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학사보다 더 높은 학위를 원한다면 외국에 가야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은 학사가 아닌 석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학은 학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석사생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익히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에서도 해외와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자모학(字母學)을 연구하게 된 것은 일종의 취미였고, 예전에 모았던 자모학 관련 서적이 후에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스스로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1933년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갔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는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날과 달리 비자도 필요 없었던 그때에는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금방 일본에 도착했다. 당시 아주 많은 일본인들이 상하이에 있었는데, 그들은 상하이를 무척 좋아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도 도쿄(東京)를 좋아했고, 도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편지를 쓸 때도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우표 세 장이면 충분했고, 도쿄의 물가는 상하이에 비해 1/10 정도만 비쌌을 뿐, 오늘날처럼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었다. 당시 상하이 홍코우(虹口) 일대에는 일본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중일 관계가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양국을 오고 갈 때에도 출입국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는 것도 아주 편리했다. 여권만 있다면 미국에 가는 것도 길어야 일주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에게서 내가 상대를 적으로 여기거나 상대가 나를 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 제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 4년 동안 공부할 계획을 갖고 일본으로 떠났지만 2년도 안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내의 임신으로 출산을 위해 귀국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와카미 하지메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와카미 하지메는 당시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경제학자였다. 일본 유학을 결정할 당시 ‘좌경’ 사상을 갖

고 있던 나는 가와카미 하지메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래서 나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이 아닌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 원서를 넣었고 한 번에 합격했다. 그러나 내가 교토에 도착할 무렵, 가와카미 하지메가 붙잡혔고 나는 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경제학을 배우려던 처음의 목표가 물거품이 되면서 나의 전공은 일본어로 바뀌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1~2년이면 딸 박사 학위를 일본에서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상하이 세인트존스대학은 미국과 연계가 되어 있었지만 일본과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이미 배웠던 수업들을 다시 한 번 들어야 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점이 있긴 있었는데, 오로지 일본어만 전공하다보니 일본어 실력이 금세 늘었다. 후에 미국에 가서도 일본어는 유용하게 쓰였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실수였다.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부부의 사랑은 맹목적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일들은 확실히 맹목적이었다. 일본으로의 유학도 그렇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한 것 역시 맹목적이었다. 나는 그때 중국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경제학을 공부하면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귀국한 후 경제학은 조금도 쓸모가 없었다.

일본에서 아내는 일본 문학을 전공했고, 일본 문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당시 일본의 저명한 문학가들의 작품이 금세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은 일본을 통해 최초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고, 일본에게서 서양 문물을 배워갔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학교에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학교 밖에 외주했다. 우리 부부도 다른 집에 세들어 살았는데, 유학 초기에 잠깐 중국청년회에서 지내다가 후에 일본 현지인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 당시 일본의 많은 가정에서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세놓곤 했는데, 특히 대학생들을 선호했다. 현지인의 집에 살면서 매일 일본어를 사용한 덕분에 우리 부부의 일본어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일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내는 출산을 위해 먼저 귀국했다.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는 것은 아주 편리

했는데, 저녁 배를 타면 아침에 바로 도착했다. 상하이에 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아내를 잘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1933년 4월 30일에 결혼했고, 아주 공교롭게도 결혼 1주년인 그 이듬해 4월 30일 아들이 태어났다. 아내가 귀국해 아이를 낳을 때에도 나는 계속 일본에 있었는데, 친척들이 상하이에서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의 귀국을 만류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해에야 귀국했다.

내가 다닌 대학은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으로 바로 지금의 교토대학(京都大學)이다. 학교는 규모가 큰 편이었고 교정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 궁전 같은 느낌이 풍기는 일본풍의 교토제국대학 교정은 세인트존스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당시에는 도쿄(東京)보다 교토(京都)가 더 재미있었고, 그 당시 모든 일본 대학생들은 전부 남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 나도 여느 대학생들처럼 한 할머니 댁에서 하숙을 했는데, 주인 할머니는 나를 보고 아주 기뻐하셨다. 유학 초기에 나는 교토와 도쿄의 말이 같은 줄 알았는데, 사실 많이 달랐다. 나는 주인 할머니에게 교토 방언을 배우기도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또 금방 따라했다. 주인 할머니는 나에게 무척 잘 대해 주셨고, 일본의 집주인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좋았다.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없어지면서 나는 주로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웠는데 나름대로 좋은 시간들이었다. 그래도 나의 일본 유학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고 나니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하지만, 해방 후 중국에 돌아가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나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있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역사의 파도가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거센 파도는 바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이다. 그 파도는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싹 쓸어 갔다. 해방 후 ‘문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파도가 또 한 번 덮치면서 전부 다 박살나고 부서졌다. 우리는 이러한 파도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4. 항일 전쟁

일본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후 한 가지 취미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춤을 추러 가는 것이었다. 상하이 정안사(靜安寺)에 ‘브로드웨이’라는 무도장이 있었고, 나는 류평성(劉鳳生), 조우타오편(鄒韜奮)과 함께 무도장에 가곤 했었는데, 류평성은 아내의 고모부이다. 가끔은 부인들도 함께 4~5명이서 춤을 추러 갔지만, 조우타오편의 부인은 가지 않았다. 무도장에는 여자 무용수들이 있어 함께 춤을 출 수도 있었다. 당시 가장 고급스런 무도장의 입장료는 2위안으로, 1위안은 두 달 동안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무도장에 갔지만, 그것은 고위직 인사들의 생활이었지 자본가들의 생활은 아니었다.

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국민당은 경제 개혁을 했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사람들은 쓰촨(四川) 등지에서 나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상하이까지 오는데 드는 세금을 포함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게 된다. 이 세금을 ‘이금(釐金)’이라고 했는데, 한 지역을 지날 때마다 1%의 세금을 거두었다. 태평천국 때부터 실시되었던 ‘이금’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장강(長江) 주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송로에는 모두 ‘이금’이 있었고, 이 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현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장제스(蔣介石)가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금 제도는 폐지되었고, 상하이의 무역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달랐다. 국민당이 친미(親美)파였다면, 공산당은 친소(親蘇)파였다. 당시 지식인들도 대부분 친미를 주장했다. 공산당은 반미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소련을 따라 반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소련은 자산 계급이 타도하고 무산 계급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로서 미국은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였던 것이다. 요즘 들어 중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제국주의를 예로 들어보면, 서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중국의 분할을 주장했다. 미국은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문호개방은 다시 말해 착취를 의미하지만, 문호를 개방했다면 적어도 중국이 분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항일 전쟁 전, 네 자매의 단체사진(왼쪽부터 넷째 장중허, 셋째 장짜오허, 둘째 장원허, 첫째 장위안허)

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중국은 한 걸음 한 걸음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주개혁을 할수록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졌는데 이러한 요구는 개혁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고, 당시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주 컸다. 특히 지식인들의 요구는 국민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또한, 소련의 영향도 한 몫을 했는데, 소련은 돈을 아끼지 않고 선전만 해댔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는 선전부서가 없었다. 후에 수많은 선전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글들이 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럼 일본은 왜 하필 이 때에 중국을 침략한 것일까? 일본은 지금 당장 중국을 공격하지 않으면 중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일본은 국민당의 세력이 충분히 커지기 전에 중국을 공격해왔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는 듯했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공산당이 일어나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공산당이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좌경’이라는 시대적 사조 때문이었는데, ‘5.4’이후 사람들의 사상이 점점 ‘좌경’이 되었다.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느라 국민당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고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국민당군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다. 일본도 항복한 상황에서, 국민당군은 또 전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련이 동북 지역을 점령했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무기

고가 동북 지역에 있었다. 일본 동북부대는 소련에게 항복하면서 무기고까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소련은 그 가운데 중화기만 챙기고 경화기는 공산당에게 주었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는 모두에게 커다란 재난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인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지만, 일본 군부정권은 일반 일본인들과 완전히 달랐다.

일본에 있을 때, 우리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친구 아니면 학교 선후배였다. 그 당시 일본과 중국은 서로 친구를 사귀고 마치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상하이에도 일본인이 많았지만 동북 지역에는 더 많았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몇 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내쫓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이었다. 국민당이 친미(親美)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미국인과의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마치 원수처럼 변해버렸지만 말이다. 가끔 정부의 정책은 대중들의 요구와 다르게 추진된다.

일본의 침략은 중국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장제스는 현대적 장비를 갖춘 네 개의 사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대략 2만 명씩 구성된 사단은 그야말로 진정한 신식군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러한 신식 사단이 몇 십 개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당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전쟁 초기 일본은 국민당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상하이를 공격했다. 처음에는 일본군이 밀리는 듯 했지만, 전쟁의 국면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군은 연달아 사령관을 교체했고, 후에 병사의 수도 대폭 늘려나갔다. 결국 장제스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남아있는 두 개의 사단만으로는 다시 공격할 수 없었던 장제스는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사단은 후에 충칭(重慶)을 보위했고, 장제스가 후퇴하게 되면서 상하이에는 신식 군대가 아닌 잡군들로 구성된 구식 군대만 남아있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했던 일본은 중국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틈을 타 먼저 공격했지만, 일본 역시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년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8년이 지



1938년, 온 가족이 쓰촨(四川) 난시(南溪)로 피난 왔을 당시. 앞줄 가운데 어머니 쉬윈(徐雯), 뒷줄 오른쪽부터 저우유광·장원희 부부, 셋째누나 저우후이젠(周慧兼).

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패하고 말았다.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중국을 바꾸어 놓았다. 그 첫 번째는 일본의 침략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친구에서 원수가 되어버렸고, 두 번째는 바로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중국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15. 상하이(上海)에서 쓰촨(四川)으로

일본에서 귀국한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중국에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광화대학에서 교수 초빙이 들어왔고, 다른 직업을 찾지 못했던 나는 광화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당시 광화대학에는 두 개의 부설중학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화대학부속중학교(光華大學附屬中學)이고, 다른 하나는 광화대학실험중학교(光華大學實驗中學)이었다. 두 학교 모두 훌륭한 학교로 해방될 때까지 가장 좋은 학교로 이름 나 있었다. 아내는 실험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교에서는 예전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 부부를 초빙한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유학 준비를 했다. 당시로서는 미국에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학에 필요한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반면 일본에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후에 항일 전쟁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는 상하이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계속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충칭으로 떠나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커다란 고민에 부딪혔고, 이내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영악했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이들을 더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만약 유학시절 알고 지냈던 일본인이 상하이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기라도 한다면, 내일 아침 신문에 ‘일본군 사령이 아무개를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릴게 분명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국노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던 우리는 바로 이사를 결정했다. 나는 광화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장쑤(江蘇)은행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충칭의 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을 때, 충칭에 머물고 있던 국민당 정부는 후방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당 경제부 산하 농본국을 설립했고, 많은 은행들이 농본국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농본국은 사실상 농업은행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항일 전쟁 시기에 존재했던 은행이다. 나는 농본국 충칭사무실 부주임으로 배정받아 쓰촨(四川)을 관할했었지만, 현재 농본국에서의

일들은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 현대 경제사를 연구하던 중 농본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찾아왔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니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다. 과학원이 가져온 예전의 농본국 잡지들과 내가 발표했던 글들을 보고 나서야 기억 저 멀리에 있던 아주 오래전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그 당시 농본국이 추진했던 업무가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후방의 굶주림과 헐벗음이었고, 우리는 미국이 썼던 방법을 배워와 금융을 통해 지주와 농민들이 농업 활동을 계속 하고 면화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8년이라는 긴 전쟁 기간 동안, 후방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성공적으로 해냈다. 후에 농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는데, 당시 물가는 견잡을 수 없이 크게 뛰었었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지폐 한 보따리가 필요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전시(戰時)여서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업무 상태는 아주 훌륭했다.

충칭에서 우리 일가는 무척 고생을 했는데, 매일 폭탄과 마주해야 했다. 한 번은 교외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일이 좀 늦게 끝났다. 집에 돌아와 보니 폭탄이 떨어졌는지 집도 가족도 온데간데없었다. 그 후 난원천(南溫泉)으로 이사를 갔는데, 난원천은 가마를 타고 가다가 다시 강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왜 그곳까지 이사를 갔을까?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군 전투기가 날아오더니 폭탄을 바로 내 옆에 투하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 전투기는 작았지만, 그 폭탄 하나의 위력으로 나는 밖으로 튕겨나가 도랑에 처박혔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 처박혀진 상태로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전투기가 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싶어 몸을 더듬어 보았는데 다행히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공습경보대피방송은 늘 상 있는 일이었다. 멀리서 전투기가 오고 있으면 재빨리 삼각구(三角球)를 메달아 놓았고, 근처에 다다랐을 때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내주었는데, 만약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면 전투기가 바로 머리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저녁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게 등을 꺼야 했다. 어떤 때는 시골로 대피해 논

밭에 몸을 숨기기도 했는데, 일본군이 터뜨린 형광탄은 또 얼마나 눈부신지 시골 전체가 금세 환해졌고 그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폭탄은 여지없이 날아들었다.

그 당시 항일 정신은 아주 대단했다. 전쟁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실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밝은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아주 놀라운 정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당은 그 당시 확실히 군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장제스도 지식인들을 중요했다. 이러한 고통스런 전쟁을 겪은 나로서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박살났지만 사실 아무렇지 않은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은 중국 역사상에 있어서도 아주 큰 파도였다. 8년 동안의 항일 전쟁, 그 앞뒤를 합하면 장장 10년, 그리고 또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 우리는 이 20년을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20년 동안 지식을 쌓을 수 없었던 나는 ‘문화대혁명’ 이후 서둘러 학문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전쟁기간 동안, 많은 단체들이 항일 전쟁의 문화를 위해 이바지했다. 아내는 나와 떨어져 일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다. 청두에 광화대학 분교가 설립되면서 아내는 그곳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충칭에서 아내는 청도에서 따로 떨어져 지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충칭은 너무 위험했고, 그나마 청두가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우리 부부는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함께 가까운 단체를 찾아가 일하곤 했다. 아내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쓰촨에 있을 때, 우리가족은 나, 아내, 아들 저우샤오핑(周小平), 그리고 딸 저우샤오허(周小禾) 이렇게 네 명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허에게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단순한 맹장염이었지만 전쟁기간이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 일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해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는 딸을 구하지 못했고, 이것은 내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다. 아내가 청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청두에서의 생활 여건은 그나마 괜찮았다. 집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총알들이 날아와 화단에서 놀고 있던 아들의 배를 다섯 군데나 관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집 근처에 미국 공군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친구 중 하나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곳으로 빨리 이송한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



1938년, 충칭(重慶) 난원천(南溫泉)에서 장원허.



1938년, 충칭 난원첸에서 저우유광 장원허 부부.

었다. 병원에서는 아들의 배를 갈라 충알을 꺼냈고 창자에 구멍이 송송 뚫렸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 병원은 간단한 환자는 받지 않고 심각한 환자만 치료 했는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샤오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샤오핑이 완쾌된 후, 우리는 병원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한 번은, 장강(長江)의 난시(南溪)라는 곳에서 친구 한 명이 농본국 계열에 속하는 작은 창고 하나를 관리하고 있었다. 친구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는 폭탄이 떨어질리 없다며 우리가족을 보살펴주겠다고 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누나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누나네는 아이들이 넷이었고,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우리 부부,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었다. 장강은 배로 이동하기에 아주 편리했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저녁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니 모두들 피곤했는지 금방 골아 떨어졌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밥에 약을 탄 줄도 모르고 그것을 먹고 기절한 듯 잠들었던 것이다. 지붕 위에는 우리 가족의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도둑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다. 우리가 피난 온 줄도 모르고 상하이에서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만약 그런 물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방이 온통 강도로 가득했다. 다음 날, 현지 경찰이 길거리와 지붕 위에서 우리 가족의 보따리를 발견했고, 상황은 아주 골치 아프게 돌아갔다. 우리는 결국 난시로 이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충칭에서 나는 주로 농본국에서 일을 했는데,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 매일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다.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폭탄이 떨어져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집안의 물건들은 모두 방공호에 놔두었는데, 폭탄이 터지면서 비올 때 신는 장화를 제외 하곤 모두 못쓰게 돼버렸다. 매일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고, 가족들이 없어지면 찾으러 가야했다. 그 당시 우리와 같은 가정에서는 충칭에 집 두 채를 장만했는데,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거러산(歌樂山)으로 가면 폭탄은 시내에 떨어졌고, 반대로 우리가 시내로 이사하면 폭탄은 거러산에 떨어졌다. 우리는 매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후에 우리 가족은 이빈(宜賓)으로 이사 갔는데, 사무실이 바로 그 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보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쓰촨의 수준 낮은 의료 여건 때문에 우리 집을 관리하던 보모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녀가 죽자마자 집에는 애로 사항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의외였다.

충칭에 있을 때,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래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충칭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정신적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다. 전쟁 중에 그렇게 침착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거의 죽다 살아나고, 항일 전쟁의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문화대혁명’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나는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항일 전쟁 당시, 쿤밍(昆明)에 있던 선충원과 연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공격의 대상이었던 충칭과는 달리 쿤밍은 비교적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동서는 우리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6. 맹목적인 ‘좌경(左傾)’

아내가 청두에 있을 당시 덩총(丁聰)도 청두에 있었는데, 종종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가족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덩총은 우리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가끔씩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덩총을 매우 좋아했다. 집에서 내가 “덩총의 ‘좌경(左傾)’은 맹목적이야.”라고 하는 말을 아들이 듣고는 덩총에게 고자질했다. “우리 아빠가요, 맹목적인 ‘좌경’이래요.” 몇십 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그때 덩총보다 아버지의 ‘좌경’이 더 맹목적이었어요.”

우주광(吳祖光) 역시 창저우 사람이다. 충칭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우주광의 가족과 한동안 커다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다. 뤄은(呂恩)은 우주광과 결혼했다가 후에 이혼했다. 그녀는 예전에 처남 장딩허(張定和)와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둘 다 너무 어려서 말다툼이 잦았고 처남의 성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더니 이혼해 버렸다. 그 둘 사이에 장이다(張以達)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는 잘 자라서 후에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다. 장이다에게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뤄은은 우리와 예전처럼 연락하고 있고,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뤄은은 총 세 번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쟈 처음 처남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우주광과 결혼식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비행사였던 후예상(胡業祥)과 결혼했다. 후예상은 후디에(胡蝶, 1930년대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역주)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미국에서 공군을 공부해 비호대(퇴역한 미 공군 조종사들로 구성된 국민당 공군-역주)와 함께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국민당을 몰아내기도 했는데, 그들은 무장혁명 비행사였다. 해방 후 비행사를 계속 할 수 없었던 그는 체육위원회에서 일을 했다. 그는 사람이 참 좋았고 지식수준도 아주 높았다. 예전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우리 집에 자주 방문했었다. 뤄은과 후예상 사이에는 미국계 화교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줄곧 미국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북경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는 일본에서 일본어 말고 배운 거라고는 딱히 없었다. 원래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바보같이 맹목적이고 충동적이었다. 왜 ‘좌경’이 될까? 나라를 사랑하면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고, 사상은 바로 ‘좌경’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 시대적 사조였고, 그 영향력도 매우 컸다. 이 시대의 사조는 한 번 연구해 볼만하다.

그 당시 우리 청년들의 ‘좌경’은 확실히 맹목적이었다. 이러한 맹목적인 ‘좌경’은 공산당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만약 맹목적인 ‘좌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돌아 온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귀국한 후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지인 중에 가장 큰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유엔소속 의사였다.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반드시 중국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유엔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다시 고려해 볼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귀국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귀국 후 ‘우파’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유행했다. 당연히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 행복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쯤이야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길 원했고, 생활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개혁 개방 이후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친척들은 나에게 “너 그때 뭐 하러 돌아왔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항일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했다. 항일 전쟁으로 중국인의 단결이 촉진되었고, 중화(中華)의 진흥은 모두의 바람이 되었다.

당시 나는 공산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도서관에 가서 영어로 된 《자본론》이라는 책을 빌려 보았는데도 뭐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자본주의 초급 단계의 전반부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후반부는 그도 경험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가 《자본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상상이거나 추측이었다. 인류 사회의 계급은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훨씬 이전에 발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급을 절대화



1941년, 쓰촨 장안(江安)에서 장원허(오른쪽)와 뒤은.



1946년, 세 동서가 상하이에서(왼쪽부터 구환지에, 선충원, 저우유광).

했는데, 바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식이었다. 지금 나는 사회에 계급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오늘날의 계급은 이전보다 더 대단한데, 계급은 협력이 주가 되어야지 투쟁은 부차적인 것이다. 계급이 있으면 반드시 투쟁이 있기 마련이지만, 협력을 해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게 된다. 계급투쟁은 모두가 살아남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연합해 파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다. 임금이 인상되고 나면 그들은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발전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건설된 국가는 모두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소련은 스스로 붕괴되었으며 북한, 쿠바 등 어느 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없다. 나는 미국과 일본에서 노동자가 없는 공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던 덩샤오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했고, 우리는 계급투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7. 미국 생활

항일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를 거두자 우리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전쟁이 끝나자 은행은 본래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미국과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상하이에 세운 은행들이 모두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우리도 뒤따라 바꾸었다. 사람을 파견해 배우기도 하고 설비를 사오거나 기술을 습득해 돌아왔다. 때문에 상하이 은행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미국과도 겨우 2년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실행되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1945년 항일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를 거두었고, 나는 1946년 말에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군용기만 있을 뿐 민항기는 없었다. 우리는 가장 빠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배 역시 전쟁이 끝나자 민용으로 개조한 군함이었다. 14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가는 도중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 날짜변경선이 지나면 하루가 바뀌게 되어있는데, 때마침 날짜변경선에 갔을 때가 내 생일이었다. 날짜변경선이 지나고 하루가 중복되다 보니 나는 생일을 두 번이나 보내게 된 것이다.

배 위에서 우리는 리팡구이(李方樞)의 아내 쉬잉(徐櫻)을 만났는데, 쉬잉도 곤곡을 매우 좋아했다. 우리는 배 위에서 곤곡회를 열었고, 아내와 쉬잉이 주인공을 맡았다.

미국 은행 중에 어빙신탁회사라는 은행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1번지 바로 미제국주의의 중심에 위치했다. 나는 바로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빙의 명의를 사용했고, 중국에서는 우리 은행의 명의를 사용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들의 대리인이었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대리인이었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이지 학업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업무적 대우가 좋아 여가 시간에는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조금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학습 여건은 아주 훌륭했고, 그 당시 나는 경제학을 연구했다. 뉴욕시 중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서비스가



1946년, 상하이에서 장원허.

아주 잘돼 있었다. 나는 매일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았다. 도서관 직원이 내가 매일 도서관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에게 “무엇을 연구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말하자, 그는 “아, 연구원이시군요. 도서관에서 선생님께 특별히 연구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실은 아주 작았고, 두 사람이 사용했는데, 한 사람은 오전에, 다른 한 사람은 오후와 저녁시간을 이용했다. 나는 오후와 저녁 시간을 선택했다. 책을 빌릴 때도 몇 권이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빌릴 수 있었고, 연구실로 가져와서 볼 수도 있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다.

주말에 나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위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 당시 갈등을 많이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학위를 따야하나 내심 고민이 되었다. 나는 신탁은행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이미 중산층의 수준이 되어 있었고, 이는 학부 졸업생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을 그만 두지 않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충분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다.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처리할 분량을 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업무 효율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에서 한 전문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왜 미국인의 업무처리 효율이 일본인 보다 높은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한 사람이 일본인 열다섯 명에 맞먹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와 달랐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선뜻 부장이나 차장에게 전화하지 못한다. 만약 전화를 한다 해도 비서가 받아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 버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찾아 볼 수 없다. 비서는 전화가 올 때마다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당연히 부장이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미국에서는 전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와 달랐다. 전보가 상대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여섯 시간이 소요된다. 그들은 먼저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전보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여섯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

무실에도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 공부를 할 때도 도서관 시설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본인만 원한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웠다는 것이다. 업무 방법을 보면 미국이 왜 발전 했는지, 일본이 왜 훨씬 뒤떨어지는지 알게 된다. 미국의 업무처리 방법은 1분 1초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상 일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 미국에서 일해보지 않는다면 이 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나도 미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배운 그들의 업무 방법을 중국에서도 적용하고 싶었고 가는 곳마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국인들에게는 효율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바꾸려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다.

당시 우리 은행의 규정들은 매우 엄격했는데, 이는 모두 미국에게서 배운 것들이다. 최근 신문에서 중국의 한 대형 은행이 사기꾼에게 몇 천만 위안을 갈취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사건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전 중국의 은행에서도 일어 날 수 없는 일이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몇 천만 위안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내는 나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녀는 일리노이대학에서 영국 문학을 전공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공 선택이 아주 자유롭다. 아이는 함께 가지 않았는데, 나는 중국의 청년이라면 중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문화에 대한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국 문화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때문에 아이는 중국에 남겨두게 되었고,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어머니도 미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미국에서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았고, 매우 바쁘기도 했다. 특히 일요일에는 직접 장을 본 후 중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중국 친구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중 유명한 인물로는 라오서(老舍, 중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역



1946년, 장원허 여권 사진.

주)가 있었다. 그는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 뤼창페이(羅常培), 리광구이(李方樞)도 함께 했다. 라오서는 농담을 아주 잘했다. 매주 일요일 마다 우리 집에서 중국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오서의 책이 한 미국인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판로가 좋아 많은 수익을 얻었고 라오서에게도 만 위안이 지급되었다. 라오서는 그 돈을 미국을 여행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뤼창페이와 리광구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언어학을 전공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학자였다. 자오위안런(趙元任)은 너무 귀하신 분이래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우리가 그의 집으로 갔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아주 유쾌했고, 나는 아주 좋은 곳에서 일했다. 중국 은행에서 월급이 나왔고, 또 외국 은행에서도 월급이 나왔다. 나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매년 여행 경비도 따로 나왔다. 은행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가도록 장려했는데, 다만 돌아와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미국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로 독학을 했다. 공부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선생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학습 여건은 너무 좋았고, 나는 매일 공공도서관에 갔다. 80년대에 다시 그 곳에 가보았는데, 어찌된 게 도서관은 원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도서관의 건축물은 역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몇 개의 별관을 따로 증축했고, 그 규모도 아주 컸다. 별관은 원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지어졌는데, 모두 부자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대도시 시대에 접어들었고, 좋은 것들은 모두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전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대도시만 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 그럴까? 오늘날 좋은 것들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있다. 80년대,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갔었다. 산타바바라대학 분교는 학생들이 적고 학교운영비도 충분히 도서관 설비가 아주 잘되어 있었는데, 책을 보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나는 이 대학을 포함해 총 네 개 기관의 공동초정으로 강연을 하러 간 것이었다. 그 곳은 아주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굴뚝도 보이지 않았지만 공업은 아주 발달해 있었다. 공업은 소리가 없는 것이다. 최고급 저녁 연회에서도 진동 대신 촛불을 켜고, 유명한 스타들이 모두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도 그 곳에 있었고,

토요일에 별장에 와서 휴식을 취했다. 이란 국왕의 여동생은 아주 부자였는데, 바로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정원이 있어서, 자동차를 몰고 한 바퀴 구경할 수도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 담벼락을 뛰어넘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마음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정원이 딸린 호텔에 묵었고, 한 연세 든 아주머니가 매일 내 방을 정리해주었다. 아주머니네 가족은 스페인어를 사용했는데, 멕시코인이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한 장소에 도착했다. 친구는 그 집들을 보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아주머니도 그 곳에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정원이 딸린 4층 건물 한편에 살고 있었다.

진정으로 미국의 강성함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어찌다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며, 200년 동안의 발전 역시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허풍만 떨어댄다.

18. 아인슈타인과의 만남

내가 경제학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허론편(何廉)이다. 허론편은 이전에 농본국 국장이었다가 난카이대학(南開大學) 경제연구소소장을 지냈고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다. 그는 후에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생전에 영문으로 회고록을 썼고, 회고록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어렵게 그 책을 구해 제본을 했다. 책에는 내 얘기도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다.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쓰촨 청두에 큰 사무실을 설립하고 저우야오핑(周耀平)(나의 본명)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저우야오핑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학을 졸업해 상하이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경험이 아주 풍부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허론편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나도 미국으로 갔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다. 어느 날, 허론편이 나에게 “아인슈타인이 지금 너무 한가한가봐. 대화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가서 얘기해 볼래?”라고 말했고, 나는 “그거야 당연히 좋죠.”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인슈타인을 두 번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아주 일반적이었다.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지,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다. 내가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일까? 대화 내용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방향이 나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에 살았고 나는 뉴욕에 살았는데, 미국은 교통이 편리했다. 뉴욕의 기차역은 모두 5층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역무원에게 기차 시간표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역무원은 시간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내가 문



1947년, 저우유광이 뉴욕에서 머물던 곳.



1947년, 미국에서 장원희.

외한이라 잘 몰랐던 것이었다. 미국의 기차는 전차처럼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가 필요 없었다. 그 시절에 기차는 아주 잘 운행되고 있었다. 나는 돌아오면서 미국 철도 노선표를 가지고 왔다. 미국도 철도 시대가 있고 나서야 고속도로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나는 아이슈타인과 두 번의 대화를 나눴지만,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한 대화였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담아두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학술에 대해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전공도 그와는 또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였다. 어느 날 후배가 “몇 년 동안 아인슈타인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시네요.”라고 말했고, 나는 그제서야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슈타인을 만난 건 아마 1947년이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대해 나는 아는 것이 없었다. 내 기억속의 아인슈타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생활도 자유분방했다. 나는 은행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옷 입는 것까지 아주 신경을 썼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 있었고, 대학의 분위기는 은행과 달랐다. 대학 교수들은 복장에 너무 엄매이지 않았는데, 아인슈타인은 나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금도 고약한 성미를 지니거나 잘난 체하지 않았고, 나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우리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어떤 거드름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들어 대는 성격이 아니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서 이론 업적은 장벽을 뛰어넘고 기존의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사상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정해진 공식에 얽매여 발전하지 못했다.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로 변한단 말인가? 그의 개념은 아주 굉장했다. 그는 수학을 통해 이론을 제기한 것이지, 실천을 통해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먼저 이론을 정립한 후에 실천으로 옮겼고, 이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인슈타인은 사상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 세계 일주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일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유럽 역시 ‘좌경’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곳은 아주 팽창했다. 로마시 중심에 공산당의 깃발이 있었고, 이탈리아 국회에서 공산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1/3에 달했다. 그 다음 프랑스에 갔다. 프랑스 공산당은 의회에서 1/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 전체가 조만간 공산당에게 흡수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유럽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잡혀 있는 곳이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나 역시도 ‘좌경’ 초기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산당 기관지인 《데일리워커》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런던 각지를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했는데, 후에 누군가가 외진 곳에 가야 살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공산당은 영국에서 시종 세력을 키우지 못했고, 공산당을 따르는 군중은 없었다. 영국은 공산당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비록 대영박물관은 마르크스가 지냈던 곳이지만, 결론적으로 공산당은 영국에서 최소한의 영향력만 미칠 수 있었다. 노동당은 영국에서 아주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최초의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옆 나라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영국에서 만큼은 실패했다.

은행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파견해 그곳의 상황, 주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 했는데, 경제 상황은 정치와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이 점의 중요성을 중국에서는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 특히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이미 세계적인 국가로 거듭나 있었고, 중국은 그와 정반대였다. 한 가지 예로, 중국에서 장을 볼 때 오로지 자국의 야채만 살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세계의 야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사과를 산다고 치면 그래도 많은 종류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 어느 것을 사야할지 모를 정도다. 미국은 일찌감치 세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점



쑤저우(蘇州)에서의 장원희.



장원희의 중년 시절.

이 바로 중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여행을 통해 지식인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야도 넓힐 수 있다. 시야가 좁으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세계 각국을 여행한 이유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물론 즐기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세계적인 것들을 느꼈었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나는 많은 나라를 가보았다. 여행에는 풍경 여행과 역사 여행이 있는데, 나의 여행은 역사 여행이었다. 역사 여행이라 하더라도 경제의 특징을 주로 살피곤 했는데, 어떤 곳에 가든지 그 나라 경제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습관을 길렀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겠지만, ‘만 리 길을 걸어가는 것’은 중국에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외국에 가야만 ‘만 리 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국에서 나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백과사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지금도 중국인들 가운데 극히 소수만 백과사전을 사용하는데, 이는 외국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1980년에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번역했는데 당시 10권이었던 것이 1985년에 재번역하면서 20권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중국에도 백과사전이 있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까지 세계에 뒤처져있다. 내가 백과사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선교사 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중국이 대국인 것은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세계적인 국가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만 바라볼 뿐, 사실상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이든지 모두 자국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작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중국은 미국처럼 기차역에서 수화물 보관소에 짐을 맡기면 보관소에서 보관증을 건네준다. 기차에서 내릴 때는 보관증을 반납하고 짐을 찾아야 한다. 한 번은 영국 기차역에서 짐을 맡기는데 보관증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

관증은요?”하고 묻자, “무슨 보관증이요?”하고 되물었다. 내가 또 “그럼 짐을 어떻게 찾나요?”라고 하자 “방금 무슨 지역의 어느 호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짐은 이미 방 안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하나 싶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은 중국인이 외국으로 가면 시골 촌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 미국에서 돌아오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아마 당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해방되자, 해외에 있던 지식인들이 대거 귀국했다. 우리는 모두 중국에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중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경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나는 중국에게 당시로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 건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귀국을 한 후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귀국을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중국이 해방되면서 중국 앞에 놓인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모두들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길 원했고, 이는 당시 청년들의 사조이기도 했다. 한 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했고, 그들은 모두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귀국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중국에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미국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나도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나는 귀국한 후 은행계에서 아주 높은 대우를 받았고, 고위 관리직을 담당했다. 소득 면에서도 미국에 있을 때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봉급 제도는 지금과 달랐다. 봉급과 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봉급은 중산 계급에 대한 대우였고, 임금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우였다. 봉급은 지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었고, 임금은 육체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종종 다섯 배, 열 배 심지어 스무 배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나의 봉급도 최고 임금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아마 큰돈을 벌었을 것이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가득했다.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많은 학교 선후배와 친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공산당은 오랫동안 제국주의를 배척했고 그 중



쑤저우 낙이여자중학교에서 장원허와 아들 저우샤오핑.

에서도 월가가 가장 악한 곳이라고 비난했지만, 내가 다녔던 회사는 바로 월가에 있었다. 지금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도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 때문인데, 미국에서 받는 대우가 중국보다 몇 배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로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득에 관한 문제가 나의 귀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더구나 국가가 경제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고, 어머니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귀국을 결정한 것이었다.

1949년 6월 중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미국에 갈 때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귀국하자마자 푸단대학(復旦大學) 경제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신화은행(新華銀行) 사무총장도 계속 맡았다. 신화은행은 민관합작경영 은행으로, 국민당 시기에는 민영 은행이었다. 대중들이 주식을 살 수 있었고, 주식의 1/3은 국민당 중국은행(中國銀行)과 교통은행(交通銀行)의 것이었다. 상하이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1955년 베이징에서, 가족사진(앞줄 장원허, 저우유광의 어머니 쉬원, 누나 저우후이옌, 뒷줄 저우유광, 아들 저우샤오핑)

21. 상하이의 변화

귀국한 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는 발전해야 했고, 은행은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다. 내가 귀국을 한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에게서는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와 은행을 도와 경제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내가 푸단대학 교수와 신화은행 비서실장을 겸임하던 시기에 인민은행(人民銀行)은 상하이에 분점을 세웠고, 나는 또 그곳의 제2업무처 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2업무처는 개인에 대한 업무를, 제1업무처는 국영기업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나는 세 가지 일을 겸임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바빴지만, 확실히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당시 상하이 천이(陳毅)시장님은 아주 진보적이셨는데, 회의를 열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혁하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셨다. 1949년부터 1959년까지 10년 사이에 이미 ‘반우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파급 범위는 넓지 않았다. 사실 55만 명의 지식인을 타도했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알고 있었다. 비록 눈에 보이진 했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금방 시정될 것이라 생각했다. 후에 일명 ‘속성 교육’이라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었다.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했고, 4~5년이라는 대학 교육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속성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질문 했었는데, 그때 나는 속성 인재가 대거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속성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고 대답했었다. 어떤 일들은 당시에는 아주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다. 나는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나의 임금은 공산당이 해방 후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원래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임금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은 봉급을 임금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나는 당시 푸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로서 상하이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을 예로 들자면, 임금이 크게 삭감되었는데 원래 100원이었다면 80원을 삭감해 20원 밖에 되지 않았다. 임금을 개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출근했더니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중산 계급이 무산 계급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이론은 바로 무산 계급의 국가를 건설하고 자산 계급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론은 이 돈을 아끼면 국가가 건설을 이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하이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발언했을 뿐,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적은 없었다. 후에 이 정책이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중산 계급의 붕괴는 부활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임금은 단지 소수에게만 지급될 뿐이다.

미국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귀국하자마자 푸단대학에서 초빙이 들어왔고, 푸단대학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구체적인 경제 문제들을 결합시킬 수 있었고, 때문에 인기가 매우 좋았다. 일부 교수들은 실무 경험이 없었지만, 나는 실무 경험을 갖고 있었다.

상하이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열네 개 대학의 경제학과를 상하이재정경제학원(上海財政經濟學院)으로 합병했다. 나는 푸단대학에서 그 학교의 교수로 발령받았고, 연구처 주임을 겸하기도 했다. 연구처는 아주 컸는데, 통역 부서만 해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있었다. 제자 중에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에 얽힌 일화가 있다. 당시 우리는 소련의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는데, 교수 열 명 중 아홉은 모두 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련의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꽤 어려움이 많았다. 소련의 경제 통계 교과서에 서는 ‘경제 통계는 계급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당시로서는 영국이나 미국의 교과서는 물론 중국의 교과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얼마 안되, 나는 소련에서 새로 나



1953년, 쑤저우에서 저우유광, 장원허 부부.

은 백과사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무엇이 경제 통계의 계급성인가? 샘플 조사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백 개를 생산하면 그 가운데 몇 개만 골라내어 검사하는 것이었다. 소련과 해방 초기의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샘플 조사는 바로 노동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무산 계급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산 계급은 국가의 주인이며, 무산 계급 국가에서는 노동자가 가장 높은 지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만들어 낼 리 없었다. 그런데 소련의 러시아어 백과사전에서 ‘샘플 조사’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나는 쾌재를 불렀다. 개정판 백과사전에 보면, 통계의 장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샘플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러시아 번역 부서 학생에게 번역을 부탁했고, 그 학생은 밤을 새워 번역을 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부로 인쇄해 교수님들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는데, 바로 첫 번째 줄부터 경제 통계에 계급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그래도 소련이 앞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가끔 교과서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긴 했지만 말이다. 중국은 소련에 너무 편향되어 있었는데, 소련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선뜻 말하지 못했다. 중국이 소련에게 실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문화대혁명’ 때부터인 것 같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공산당에게 그리고 소련에게 실망했다. 때문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을 진행했고, 우리는 소련의 뒤를 쫓아가지 않고 스스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 나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외자를 유치한 것이었는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와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덩샤오핑이 변화를 봤기 때문에 가능 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왔고 ‘자산 계급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나는 에너지가 넘쳐났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은행에서 일을 했고, 또 몇 명의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상하이에서 《경제주보(經濟周報)》라는 간행물을 만들었는데, 나는 매주 마다 글을 써야 했다. 그때는 정말 국가를 위해 무언인가 하고 싶었다. 《경제주보》는 1955년까지 이어지다가 내가 상하이를 떠나자마자 정간되었는데, 후에는 개인이 간행물을 출판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주보》에는 우다쿤(吳大琨)이 있었는데, 그는 후에 베이징으로 건너와 인민대학(人民大學) 교수가 되었다. 《경제주보》는 해방 전부터 있었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간행되고 있었는데, 우다쿤도 원래는 미국에 있었다. 해방 후 《경제주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쉬디신(許濂新)이다. 쉬디신은 나와 친분이 두터웠다. 해방 전 그가 잡지 하나를 창간했는데, 그는 비밀 공산당원이었다. 그의 부탁에 나는 흔쾌히 잡지에 글을 실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공산당 잡지인 줄은 몰랐다. 항일 전쟁 시기,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함께 충칭에 왔고, 나도 그 당시 충칭에 있었다. 마오쩌둥은 며칠 머물다 떠났지만, 저우 총리는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소위 민주인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저우 총리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쉬디신은 저우 총리의 비서로서, 충칭에서 열리는 회의는 모두 그가 연락해서 소집한 것이었다.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화은행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었고, 또 인민은행 화동지점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는 세 군데에서 월급을 받았고, 업무도 아주 순조로웠다. 아내는 광화실험중학교(光華實驗中學校)에서 학생들에게 중국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학교는 상하이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였다. 우리는 쑤저우에 집 한 채를 더 장만했다. 어머니가 상하이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어린 아들도 상하이보다 쑤저우가 더 살기 좋다고 했다. 쑤저우는 주위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다.

나는 원래 비당원 전문 인사였지만, 후에 ‘반(反)우파’운동이 시작되자 ‘개똥’이 되어버렸다. 베이징으로 이사 왔으니 망정이지, 계속 상하이에 있었으면 ‘극우파’로 몰렸을 것이다. 상하이의 커다란 변화들 중에서 내가 본 것은 극히 일부였다. 바로 ‘삼반(三反, 반독직, 반낭비, 반관료주의-역주)운동’과 ‘오반(五反, 반뇌물, 반세금포탈, 반국가재산횡령, 반부실공사, 반국가경제정보유출-역주)운동’이다.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은 자본가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잘나가는 은행가들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황은 좋게 흘러갔다. 적어도 내가 본 바로는 그렇다.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주로 경제학을 공부했다. 어떤 부분들은 소련과 대립되기



1953년, 쑤저우에서 저우유광, 장원허 부부.

도 했지만, 국제 무역은 그래도 쓸모가 있었는데, 무역은 여전히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두 개의 시장이 존재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화폐 교환 방식을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으로 현물 교환 방식을 사용했는데, 물론 화폐 교환도 쓸모가 있었다. 오늘날 국제 무역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며, 여전히 쓸모가 있다. 그러나 경제를 건설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우리가 배운 것들은 소련과 달랐다. 은행의 기술도 잘못되었는데, 그들의 은행 기술은 시대에 아주 뒤떨어져 있었다. 해방 후, 은행은 사라지고 회계실만 남게 되었다. 은행에는 완벽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몇 천만 위안을 사취당하는 사건은 제대로 된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은행이 아직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시종일관 경제 건설에 대해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1955년, 나는 문자개혁회의에 참석했고, 회의가 끝나고 직업을 바꾸어 베이징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왕에 남기로 결정했으니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나는 언어학 분야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전체가 현대화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했다. 경제 분야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어문분야도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경제만큼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1955년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긴 후 경제와 어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고, 아주 우연하게도 경제를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성과를 거두어 국가에 기여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더 뜻밖이었던 것은 바로 ‘반우파’운동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가끔 반응이 둔할 때가 있는데, ‘반우파’운동이 커다란 운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참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선즈위안(沈志遠) 상하이경제연구소 소장이 자살을 했다. 당시 상하이는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연구소는 당시 전국의 연구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었다. 선즈위안은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했고, 해방 전 《신경제학(新經濟學)》이라는 책을 저술했었는데, 사실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었다. 그는 국공내전 시기에 암호를 사용해 마오쩌둥과 전보를 주고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나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자 중에 왕스장(王世璋)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도 자살을 했다. 그 당시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항일 전쟁 시기에, 충칭은 일본군의 심한 폭격을 받았다. 때문에 성안에서는 살 수 없었고 난안(南岸)의 조그만 평지에서 지내야 했다. 퇴근을 하면 가마를 타고 강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다. 하루는 일본군 전투기가 내 옆에 폭탄을 투하했고, 가마에 있던 나는 진흙탕으로 고꾸라졌다.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너무 놀라 바르르 떨릴 정도였다. 나는 내가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옆에 있었던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또 한 번은, 충칭의 교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무실이 폭격을 당해 난리도 아니었고, 동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도 폭탄이 떨어져 있었는데, 가족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항일 전쟁 때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후에는 더욱이 ‘반우파’운동에서도 살아남았다. 훗날 상하이에 있던 친구 하나가 그들이 고생을 겪을 때 나는 베이징에서 연구만 했다고 말했다. 한 평생 살면서 두 번의 재난을 모면한 나를 보면서 친구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곤 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국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나는 1949년부터 1959년까지 많은 건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반우파’운동이 일어났었지만 그 피해는 크지 않았고, 많은 업무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한어병음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삼년 재해가 시작되었고 인민공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 이십 년 동안 우리는 실패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었다. 1980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추진했는데, 중국의 개혁 정책은 소련보다 일찍 진행됐다. 소련은 너무 깊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했고, 결국 스스로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는 자신만의 객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힘은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반우파’운동은 상하이에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어문학계에 대한 압박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문자 개혁은 국가 생활과 문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과장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자 개혁은 공산당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청나라 말기 때부터 움직임이 있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된 것이다. 처음 국어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 일례로, 베이징의 한 농민이 아들을 도시로 학교를 보냈다.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 표준어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껏 공부를 시켜봤더니 조상님의 말은 짝 다 잊어버리고 온거냐!”라고 욕을 해줬다고 한다. 방언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표준어를 보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표준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한자의 간체화(簡體化)도 청나라 말기 때부터 제기 되었던 것이다. 장제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간체화에 참여했다. 난징에서 간체화를 추진한 것도 장제스의 동의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대만에 가서도 장제스는 두 차례나 간체화를 제시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도 대만은 간체자가 공산당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22. 문자개혁위원회

1955년 10월 상하이로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상하이에 돌아가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전국문자개혁회의를 열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회의 주관자가 나를 붙잡아두는 바람에 나는 새로 설립된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원회 밑으로는 두 개의 연구실이 있었는데, 제1연구실은 바로 중국어의 병음화(拼音化)를 연구하는 곳으로, 내가 주임을 맡고 있었다. 현판에는 ‘제1연구실’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는데, 중국어의 병음화 이외에도 다른 일들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2연구실은 한자의 간체화를 연구하는 곳으로, 차오보한(曹伯韓)이 주임을 맡았다.

나는 192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자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세인트존스 대학에서는 모두가 영어로 말하고 타자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편리했는데 이 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는 언어 과목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후에 해외에서 특히 영국에 가서 수많은 자모학과 관련된 서적을 사오기도 했다. 중국에는 자모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자모학을 접한 후 큰 흥미를 느꼈다. 당시 미국에 있었던 우리 은행은 업무적인 일로 영국을 왔다 갔다 했고, 그때마다 내가 가려고 했다. 당시로서는 일종의 취미였지 후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년대, 상하이에서 어문좌익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예라이스(葉籟士)가 바로 운동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는 《어문(語文)》이라는 잡지를 출간했고, 나는 그들에게 글을 써주었다. 후에 상하이는 로마자표기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상하이에서 일어난 로마자표기 신문자운동에 참여했었다. 때문에 1955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문자개혁회의에서 나를 초청했다.

‘반우파’운동 시기에 나는 직업을 바꾸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예전에 썼던 책이나 문장을 가지고 걸고넘어진다면 상황은 골치 아파질 것이다.

나의 언어 연구는 아마추어 수준이며 이에 대해 비전문가라고 해도 회의 주관자는 “이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아닌가, 모두가 모르긴 마찬가지지.”라고 말하곤



1958년, 베이징 시산바다추(西山八大處)에서 장원허.

했다. 그때는 확실히 의욕이 넘쳐났던 시기라 국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는 주저 없이 일을 시작했다. 우위장(吳玉章)은 문자개혁위원회의 주임으로 당시 직급이 아주 높았는데, 위원회의 주임은 장관급 대우를 받았다. 부주임은 후위즈(胡愈之)였는데, 우위장의 나이가 너무 많았던 터라 실제적인 업무는 후위즈가 맡아서 처리했다. 후위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글 쓰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의 견해에는 진정한 세계적인 안목이 담겨 있었고, 나와도 호흡이 잘 맞았다. 당시 후위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아주 친절했다. 나는 종종 저녁 9시가 되면 잠을 청했는데, 그들이 오면 12시까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는 마치 친구 사이처럼 가까웠고, 그 덕분에 일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우리를 중난하이(中南海)로 초청해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는데, 식사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하고 가라고 붙잡곤 했다. 확실히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단합이 잘 됐다.

당시 병음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문개위’는 병음방안위원회를 설립했고, 소위원회는 열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실상 회의 때만 잠깐 왔다갈 뿐, 평소에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었다. 진짜 업무는 우리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후에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추천했는데, 바로 예라이스, 루즈웨이(陸之韋)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였다. 많은 자료들은 모두 내가 연구한 것이었는데, 내가 연구실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아주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3년만에야 완성할 수 있었다. 가끔 지인들은 내게 “자모 몇 개를 가지고 3년 동안 연구했어?”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3년 이라는 시간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하나 하나를 철저히 해결했고, 조금도 데면데면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예전에 우리가 이미 연구했던 부분이었다. 바로 여기서 자모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내가 런던에서 사온 자모학 관련 서적들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세상에 이처럼 우연한 일이 또 있을까.

병음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자모학 응용을 필요로 했는데, 우연하게도 나는 자모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틈틈이 공부했었다.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했고, 해외 연구자들의 연락망을 갖고 있던 나는 그들에게 연락해 자료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어문 연구 분



베이징 후청허(護城河)에서 저우유광, 장원희 부부.

야의 책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그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처럼 읽은 것이 아닌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였는데, 연구를 하면서부터는 아주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문개위’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잡아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당시 중국에 언문학과 문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지만 모두 전통적인 어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현대 어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는데, 그 중에서 자모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한어병음방안을 완성했다. 지금으로 볼 때 방언의 연구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모두 이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안을 둘러싼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이 왜 이 방안을 연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유네스코에서 특히 항공이 발전함에 따라 지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로마자로 된 지명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를 요구해 왔다. 항공 분야에서는 철자 하나만 틀려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병음방안은 우선 항공 분야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명의 표준화는 중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의 일부 국가의 지명은 유럽에서만도 그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다. 항공에서는 한 지명에 반드시 통일된 하나의 표기법이 요구되는데, 조금만 달라도 문제는 바로 발생하게 되어있다.

중국의 문자 개혁은 초기에 소수의 지식인들만 참여했다가 후에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식인들 사이에만 머물러 있었다. 대략 1933년에 시작된 로마자표기운동은 대중성을 띄는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운동과 비교해보면 언뜻 보기에 중국 수준이 확실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개혁운동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자학과도 연관성을 띄고 있어야 했다. 나는 운도 좋았다.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마구 솟아났다.

어문학계에서 뤼수샹(呂叔湘)과 왕리(王力)는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내가 베이징대학에서 한자 개혁 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도 왕리의 소개 덕분이었는데, 그는 당시 베이징대학 중문과 학과장을 맡고 있었다. 한자 개혁 수업은 반년 동안 개설됐는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인민대학(人民大學)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베이징대학에서는 3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다. 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 《한자개혁개론(漢字改革概論)》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재판(再版)되었고, 일본에서도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우리는 표준화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를 할 줄 몰랐다. 중국인들 끼리 있을 때에도 서로 의사소통 할 방법이 없었는데, 특히 광둥(廣東)사람이 베이징에 오면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다. 국가의 공용언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했는데, 쉬스룽(徐世榮)이 바로 표준어의 첫 번째 이론서를 저술한 사람이다. 예전에도 수많은 언어학 서적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 쓸모 있는 것은 한 권도 없었다. 문자학은 모두 고서를 읽기 위해 존재했고 오늘날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고문을 연구해야만 학식이 있고, 현대를 연구하면 학식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잘못 된 생각이며, 현재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바로 ‘문자개혁운동’과 문자학 및 언어학을 결합시킨 최초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몇 권의 소책자가 있긴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었고, 소련의 로마자표기운동 역시 이론이 부족했다. 이는 내가 ‘문개위’에 온 뒤에 이루어 낸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 개혁의 학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중국은 서양의 언어학을 도입하긴 했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지는 못했다.

미국의 대단한 점은 바로 모든 일마다 당시의 실생활과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과 너무 상반된다. 중국의 많은 부분들은 고대를 위해 존재하지 현대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구습이다. 선충원은 학교 안에서 백화문을 가르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선충원을 보면서 “백화가 무슨 학문이야?”라며 업신여기듯 말했지만 후스(胡適)는 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고대보다 현대를 중시하는 반면에, 중국은 현대보다 고대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이 논하는 문자는 모두 고대 문자이며, 현대 문자를 논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문자 개혁을 하나의 학문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각 대학마다 문자학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고대 문자를 연구하지, 현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완전히 비정상적이다. 나는

현대한자학 연구를 제창했는데, 후에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현대한자학에는 많은 교과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쑤페이청(蘇培成)이 저술한 두 권의 책이 베이징대학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적어도 중점대학 몇 곳에는 이미 현대한자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대 한자만을 얘기할 뿐, 아무도 현대 한자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비정상적이다.

나는 비교문자학도 아주 중시했는데, 후에 이론을 발전시켜 《비교문자학에 대한 초보적 탐구(比較文字學初探)》와 《세계문자발전사(世界文字發展史)》라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다. 나는 대학에 비교문자학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대학에는 지금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다. 반면, 칭화대학(清華大學)에는 이를 연구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다.